(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78 1982년 7월 19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July 19,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이민초청 재정보증 연한 관계없이

"5년거주자 웰페어 탈 수 있어

「온」주 복지성, 거부 되면 항소토록

연방정부가 이민규정에 명시한 초청후견인의 책임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5년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사람은 누구나 생계수당(웰페어)등 캐나다의 사회복지혜택을 탈 수 있음이 확인됐다.

온타리오주 지역사회및사회복지성(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은 이민초청시 후견인이 5년, 10년 혹은 일생동안 이민자를 돌보기로 하고 초청한 경우 비록 캐나다 시민권을 땄더라도 웰페어 신청시 거절되는 사례에 대해 주정부는 이미 각 시당국에 5년이상 거주자에 대한 이민후견규정을 무시하라는 지침서를 시달했다고 발표했다.

로빈·버체스공보관은 16일 일부 교민들이 생계수당 혹은 가족연금(Family Benefits Allowance)등을 신청해도 이민초청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경우 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항소지침서를 보내고, 5년 이상 거주자는 영주권자건 시민권자이건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소하도록 권고했다.

연방정부 이민성은 이민초청자는 피초청자에 대한 후견책임이 67년 이전에는 평생동안, 67년부터 78년사이에는 5년간, 78년이후에는 10년간 책임지도록 규정해왔다.

웰페어는 온타리오주정부 책임하에 각 시정부가 관할한다. 각 시정부는 이민당시 초청자의 재정보고서를 첨부, 능력이 없음이 법적으로 증명돼야 웰페어를 탈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시민권자이면서도 웰페어 문제에서는 이민자의 딱지를 계속 부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한 예로 67년이전 형님의 초청으로 이민, 15년간 캐나다에서 일해온 시민권자인 미시사가의 Y씨는 최근 경제악화로 8년 근무한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웰페어를 신청했으나, 그당시 이민초청자는 평생 책임지겠다고 서약했으므로 형님(캘거리 거주)의 재정능력 조회를 위해 당시의 이민서류번호 제출을 요구했다는것.

이에 대해 온타리오주 복지성 버체스공보관은 웰페어는 연방정부가 50%, 주정부가 30%, 시정부가 20% 재정부담하는 제도로 미시사가시정부에 관할권이 있긴 하지만 연방정부의 이민규정이 법적강제력은 없으므로 항소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패밀리·베네핏 항소방법

웰페어 항소는 1)시정부의 웰페어담당관에 구두로 하거나 2)사회복지검토위원회(The Social Assistance Review Board)에 서면으로 올릴 수 있다. 사회복지검토위에 항소할 때는 각주·시정부 사무소나 우편으로 『FORM 1』을 작성해서 보내며 웰페어를 거절받은지 30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주소는 :
Social Assistance Review Board
Room M1-56
Queen's Park,
Toronto, Ont.
M7A 1E9

사회복지검토위는 『FORM 1』 접수즉시 접수확인을 항소자에 보내고, 3~4주이내에 청문회 날자·시간·장소가 명시된 Notice of Hearing을 보내온다.

청문회에서는 항소자 자신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의료기록등과 이미 시·주정부에 보낸 관계서류들의 복사본도 본인이 소지함에 유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증인도 출석시킬 수 있다.

청문회의 결과는 추후에 통지되는데 결과가 오기까지 잠정보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는 청문회전 Social Assistance Review Board에 요청돼야 하므로 『FORM 1』 제출시 함께 해두는 것이 좋다.

◆웰페어 항소방법

패밀리·베네핏 항소는
Director, Income Maintenance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Queen's Park
Toronto, Ont.
M7A 1E9 으로 10일이내에 편지를 보내면 소득보조국장(Income Maintenance Director)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 준다.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사회복지검토위(Social Assistance Review Board)에 편지하면 30일이내에 답장이 온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개스도둑 자꾸 늘어

주유소 선불제될 듯

셀프·서브 개스 스테이션(고객이 직접 개스를 넣는 주유소로 개스값이 조금씩 싸다)에서 돈을 안내고 뺑소니치는 사람들이 많아져 선불제가 도입될 전망이 크다.

캐나다걸프석유회사는 경제가 악화되자 토론토의 "개스도둑"이 크게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조·코프로대변인은 주로 24시간 문여는 주유소에서 많이 일어나며 종업원이 차 색깔·차량번호를 기억해두거나 해서 경찰에 적발되면 $200까지의 벌금형이 내려지므로 $10정도 벌려다 큰 손해 안보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 안내고 뛰는 것을 재래형양체라고 한다면 개스도둑은 신형양체?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편집인 : 이석
인쇄인 : 박정서
광고국장 : 송광호

우대금리 하락 17.75%

경제의 희소식, 캐나다달러도 강세 79.06¢

매일같이 우울한 소식만 들리던 경제뉴스에 한줄기 서광이 비쳤다.

16일 캐나다주요은행들은 최우선고객(blue-chip companies)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18.25%에서 17.75%로 낮췄다.

이같이금리가인하되면현재 연 19%선인 주택 모기지 이자율도 떨어지게 된다.

경제회복의 한가지 청신호로 볼 수 있는 이 금리인하는 지난 3월 16.5%에서 17%로 오른후 계속 오름세였다. 4개월만에 반전된 셈이다.

경제회복의 또 하나 조짐은 캐나다달러의 강세이다. 캐나다 1달러당 미화 77센트대까지 떨어졌던 대미환율은 15일 79.09센트로 상승했다.

캐나다은행들이 우대금리(Prime rate)를 낮춘후 달러가치상승은 약간 주춤했으나 당분간 강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이번 금리인하는 미국금리의 하락을 반영하고 있으나 금융시장 소식통들은 금리인하 추세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15일 비록 미국금리나 중앙은행금리가 떨어졌어도 금융시장 전망이 불투명, 은행들이 금리인하를 안한다는 소문이 나돌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암담한 경제뉴스에 시달리던 국민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금리인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북한 어선 납치 수산청 귀환 요구

(서울16일=연합)한국수산청은 16일 북한은 13일 납치한 한국어선과 선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김종수 수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35명의 어부를 실은 마산호가 울릉도 북방 272km지점에서 조업하던중 북한순시선에 의해 강제로 납치됐다고 발표했다.

수산청발표에 의하면 53년 휴전이래 북한은 453척의 어선과 3,554명의 어부를 납치했었다.

◁금주의 행사▷

7월19일~25일

◆19일(월) 하오7시 – 체육회 이사회
곳 : 체육회 사무실
연락처 : 5335-9336

◆24일(토) 상오11시 –COSKA (한인컴퓨터회) 피크닉
곳 : G. Ross Lord Park
연락처 : 968-7122

◆섭씨 26.7도를 오르내리는 무덥고 후덥지근한 여름날씨가 계속된다. 사진은 미국캘리포니아주의 말리브해변가. 시원한 파도소리가 들리는듯 하다.

社 告

이민사 자료수집

본사 병설 한인이민사연구실(실장 이석현)은 캐나다전국 한인이민사에 참고가 될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 비치함으로써 이땅 한인이민사 정립에 뒷받침이 되고자 전국에 걸쳐 자료를 모으고 있읍니다.(당장 이민사를 기술하는 것은 아님).

이 연구실은 전국의 교포단체, 개인들에 이르기까지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항상 문을 열어, 이용의 편의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각지역의 해당자료들(행사안내서·문화행사 초청장·프로그램·포스터·기관지·동인지·주소록·동창회지·학술발표문등—아무리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이라도)를 보내 주시는 친절을 기대합니다.

개인으로 볼 때에는 별로 쓸모없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도 자료실에 모아 비치하면 장래에 소중한 자료로 빛을 발할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많은 협조(자료송부·참고조언)를 부탁드립니다.

(1)개인에 관계된 자료—스크랩북·일기 회고록·가족사진·본국과 이민자 사이의 편지.
(2)사회단체에 관계된 기록—회의록·선전문·재정보고서·단체약사·단체 ·회원명부·보도자료.
(3)이민안내관계 책자.
(4)교회관계 기록—세례·혼인·장례식·회보·기념간행물·빌딩기록·사진·주일학교 관계기록·연차보고서·재정보고서·교인명부·교회각소회의 기록·설교집등.
(5)신문들(캐나다엔 지금까지 11개 한글신문이 있음)
(6)구술인터뷰—녹음 테이프등.

◉자료접수처 :
한인이민사 연구실
The Korean Immigration Resource Centre
c/o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Tel:1-(416)533-2361

한국일보사

은하 보석
란 금 화 장 품 / 대 리 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 627 Bloor St. W. 533-8593

오늘의 예금금리 (6월 23일부터)

종별	기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89일	15%	14.5%
	90~179일	15.75%	15.5%
	180~365일	16%	15.25%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더 드립니다.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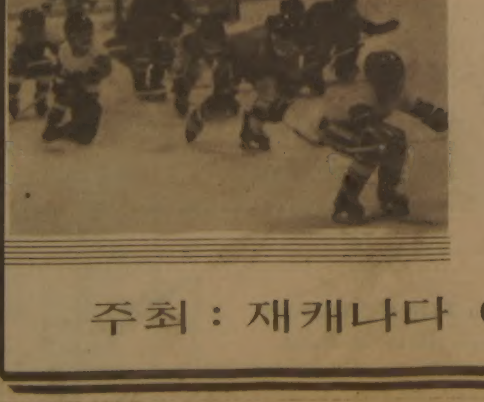
강하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 (구 : Sea King)
—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 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 특히 해산물 전문.
☼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 1주내로 술허가 나올 예정.

☼ 매일 OPEN(일요일 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RD ST. E. (제랄드 × 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 지하실)
☎ : 465-8272
N W E S BROADVIEW GERRARD E.

하키의 명문
휘문고 토론토에..



7월26일(월)부터 2주간
화랑및 캐네디안팀과 5차 친선경기
장 소 : Chestwood Arena
(Keele × Dufferin)
* 시간 추후 발표예정임.
* 동창및 교민들의 성원바람.
연락처 : 강치영(휘문 동창회장)
☎ 746-1097
정윤상(휘문 동창회 총무)
☎ 243-7170
이종원(아이스하키협회장)
☎ 741-2522
주최 : 재캐나다 아이스하키협회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불륜』 저지하자 총격

情통해오던 여인 모친팔에 관통상

(디트로이트)유부남과 유부녀가 정을 통해 오다 이를 말리는 가족에게 총을 발사한 사건이 디트로이트 한인사회에서 발생했다.

20일 상오7시30분쯤 디트로이트시 서북쪽교외 남모씨집에서 남씨의 부인(31)과 불륜의 관계를 맺어온 정계성씨(42·154 팜 스테이트롤레도)가 남여인가족과의 언쟁끝에 22구경 권총을 난사, 남여인의 어머니(68)의 오른팔을 관통시켰다.

디트로이트에서 바디숍을 경영하는 정씨는 지난 4월 자동차수리를 하러온 남여인과 알게된후 그동안 깊은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됐다.

남여인의 남편은 작년8월 웨인대학에서 공학석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직장을 얻어 3세된 아들과 귀국했는데 남여인은 자신이 경영해온 햄버거숍을 정리한다고 이곳에 남아있었다.

남여인은 그사이 친정어머니와 오빠 정모씨(40)를 초청해와 이들과 함께 살면서 남편의 귀국독촉을 차일피일 미뤄왔었다.

이들은 콜로라도주 멘버에 함께 여행을 갔다가 이날 새벽 남여인집에 함께 나타나는등 점점 둘사이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표출하자 오빠 정씨가 정계성씨 집에 연락, 부인과 큰아들(14), 이웃 정정숙씨 김영석씨등이 들이닥쳤다. 이에 화가난 정계성씨는 차속에서 권총을 꺼내 남여인의 오빠를 향해 두발을 발사했는데 이를 말리던 친정어머니가 팔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졌다.

이웃들의 신고로 친정어머니는 앰블런스에 실려 인근병원으로 옮겼으나 생명에는 지장에 없고 정씨는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살인미수혐의로 수감됐다.

7년전 이민온 정계성씨는 3자녀를 둔 가장이며 남여인은 S대문리대 영문과를 나오고 여고영어교사를 하다 4년전 미국에 왔다.

한국일보 · 토론토
구독은…
533 2361

중국7천년 전시 사이언스 · 센터서

세계최초로 종이, 화약, 의약품등을 발명한 중국문물전시회 『중국 7천년전』이 온타리오과학관(사이언스·센터)에서 성황중에 열리고 있다.

중국인의 발명품, 공예, 미술품을 비롯, 주말에는 중국 연예인들의 실황공연도 있을 『중국 7천년전』은 10월31일까지 계속되며 입장료는 어른 $5, 학생및 노인 $2.50, 어린이 $1.25,일가족 $10.00이다.

입장시간은 9월6일까지는 아침10시부터 저녁10시까지, 9월7일부터 10월말까지는 아침10시부터 오후6시까지(주말은 오후10시까지)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1:30, 3:00, 4:30에 각각 중국민속무용, 두부만들기시범등의 공연도 있다.

서울서 와이즈멘 세계대회

토론토선 3한인멤버 참가

◆엄요섭 총재

국제 와이즈멘클럽 제55차 세계대회가 7월20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와이즈멘클럽(총재 엄요섭) 주최로 열리는 이번 세계대회에는 와이즈멘클럽이 조직된 세계 모든 나라에서 대표단을 파견, 크리스챤 정신에 의한 봉사·협조·평화적 유대를 다짐하며 우애를 두텁게 하는 세계규모의 맘모스대회이다.

2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의 84년 차기대회는 캐나다에서 열린다.

토론토한인와이즈멘 베타클럽(회장 이석현)에서는 홍승규 부회장, 김창열 한인YMCA 총무, 안병원 회원내외가 이 대회에 참가하며 캐나다대표단도 대거 참가한다.

홍부회장은 이미 서울에 체자이며 김총무는 7월1일, 안씨내외는 12일 각각 출발했다.

◆13일 낮 몬트리얼시내에서 올스타게임 오찬회에 참석한 인사들. 왼쪽부터 찰스 엑스포스구단주, 트루도수상, 보위·쿤메이저리그 커미셔너, 서종철 한국프로 야구 커미셔너. 왼쪽끝에는 태극기가 게양됐다.

〈스포츠 단상〉

내셔날 우세 수퍼스타 때문

도대체 왜 내셔날리그만 계속 이기고 있을까? 33년 올스타게임이 시작된이래 내셔날리그는 34승18패1무(61년에 무승부)로 우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70년도에 딱 한번 아메리칸리그가 승리했을뿐 계속 내셔날리그가 20승을 거두고 있다.

41세 노장이며 16번씩 올스타게임에 출장한 피터·로즈는 "양리그에 각각 수퍼스타가 많지만 내셔날리그에 좀더 많다"고 한다.

간단히 이름을 집어봐도 내셔날리그에는 홈런왕 마이크·슈미츠(필라델피아), 연봉 2백만달러의 게리·카터(몬트리얼), 투수진도 선풍의 바렌주엘라(다저스), 스티브·칼튼(필라델피아) 등 스타들이 부지기수이다.

아메리칸리그에도 스타들은 많다. 도루의 왕자 릭·핸더슨(오클랜드), 10월의 사나이 레기잭슨(CAL앤젤스), 80년 MVP 죠지·브렛트(캔사스시티)등과 투수진도 양키즈의 론·기드리, 고시지등 다양하다.

금년도 아메리칸리그의 패인은 뉴욕·양키즈의 부진(아메리칸 동부조5위)에도 원인이 있다. 해마다 5,6명이상 올스타게임에 선발됐으나 이번에는 겨우 데비드·윈필드(프로야구 최고연봉선수)와 투수 2명만 기용됐다.

아메리칸리그가 연패, 게임자체가 박진감없이 부진했다는(홈런 1) 비난에도 불구, 53회 몬트리얼올스타게임은 성공적이었다.

인상적인 것은 6만의 관중외에도 천여명의 손님을 치루는데 조금도 무리가 없었다는 점이다.

또하나 특기할 사실은 스포츠세계에는 스포츠인의 권한이 절대적이며 우선적이다.

13일낮 보위·쿤 커미셔너주최 오찬회에는 트루도수상, 윌리암·데이비스수상등 많은 정치가가 참석했으나 연단에 올라간 사람은 단하나 트루도 뿐. 트네·레베 퀘벡주수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트루도는 보위·쿤다음 2번째 자리에 앉았다. 연단에는 선수들의 가족이나 야구관계자만 앉을 수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서종철 한국프로야구 커미셔너였다.

캐나다, 하키와 추위 수출

미국, 야구와 산성비로 대응

이 오찬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역시 트루도의 연설이었다. 최근의 캐나다 경제악화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면서도 이것을 재치있는 연설로 대해 10여분간 기립박수를 받았다.

"내가 가장 가난한 봉급쟁이이고 더구나 옵션도 없다.(선수들의 연봉은 수상 봉급을 능가한다)"고 말한 트루도 수상은 계속해서 손님중 대부분이 미국인인줄 알면서 "캐나다는 하키선수와 추위를 미국으로 수출하나 미국은 야구선수와 산성비(Acid Rain)를 수출한다"고 캐나다·미국의 불편한 관계의 하나인 산성비문제를 꼬집었다.

이제 북미프로야구는 올스타게임을 정점으로 후반에 접어들었다. 항상 바닥을 맴돌고 있는 토론토·블루제이스 승률은 5할대를 육박, 작년보다는 많이 발전했다.

최동원투수가 토론토에 온다는 것은 불발로 끝났으나 아직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어 내년쯤 블루제이스 유니폼을 입은 최동원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올스타게임에서 만난 블루제이스의 하워드대변인은 "우리는 아직도 최를 원한다"고 말해 최동원측의 OK만 남았다.

오는 9월에 서울서 열리는 세계아마선수권대회가 끝나면 최의 문제는 확정될 것이다.

(유승민 기자)

◆스포츠방송의 인기아나운서 하워드·카셀이 케리·카터와 인터뷰하고 있다.

〈여동원 수필선〉

⑧ 신의 설계도

여 동 원(문협회원)

나는 10여년을 기계 고치는 일을 했었다. 이 하찮은 일에서도 나는 몇가지 귀한 사실을 발견하고 배웠다.

즉 기계는 신이 만들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다는 사실과 대부분의(모든) 기계는 제어(Brake)장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만든 기계를 인간인 내가 고치는 일은 가능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다.

복잡한 부분이 고장났을때 그 부분을 조사하고 찾다가 마지막으로 나는 그 기계의 설계도를 들여다 보게 된다.

기계는 인간이 만든것이나 설계도가 꼭 있다. 그 설계도는 인간의 이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알면 결국은 고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 다른 기계가 있다. 설계도를 신이 지니고 있는 인간이라는 기계다. 신이 만든 인간이란 기계를 고치는 의사는 무척 어려울 거라는 사실이다. 신의 설계도를 들여다 볼 수 없는 의사는 궁극적으로 들여다 본 근거가 없다.

만약 설계도를 찾았다해도 우리 인간이해밖에 있을수 있으니 의사의 업은 쉽지 않다는 점을 나는 이때야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

나는 과거 많은 크고 작은 병을 앓았다. 남들이 일생 한번할까 말까하는 대수술만도 4번이나 받은 병주머니였다. 병원도 많이 가고, 약도 많이 먹었다. 그때마다 나는 의사들은 면허있는 도둑놈이라고 원망도 많이 했었다. 돈만들이고 병은 낫지않고, 잘수록 아픈부분은 쑤셔오고, 그러나 지금은 인술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수고에 머리숙여 존경한다.

기계는 잘못 고치며 다시 고치면 되고, 망가지면 내버리고 새것을 끼우거나 다시 사면된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일회적이다. 오진이나 잘못은 곧 생명과 관계된다. 다시니, 또 한번이니 하는 실수를 허용못하는 인술은 책임속에서 일을하는 그들의 노고에 우리는 백번 머리숙여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다.

다음은 제어(Brake)장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신만이 영원성을 지녔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우리 인간처럼 양심이라고 하는 자기억제를 지닐 필요가 없다. 다시말해서 영원성은 어떤 구속이 필요없이 자기 본성대로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이다.

앞에서도 지적한것 처럼 모든 기계는 움직이게 되어 있으면서 제어장치나, 방향조절 장치가 되어있다. 인간도 본성이 자유하면서 양심, 도덕이라고 하는 똑같은 제어장치를 갖고 있다. 신이 아닌 인간은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양심에 의하여(법과 윤리까지 포함) 인생을 운전하며, 조절하며 살아가게 된다. 시계를 한번 들여다 보자. 제동장치를 닫지 않는 영원성을 지닌 유일의 기계다. 신처럼 영원속에서 살아가야하기 때문에 제동이 필요없다.

우리가 이상으로 하는 시계는 신처럼 고장이 날 필요도 없고, 정치해서는 안되는 영원토록 살아주는 절대적인 존재값은 것이다.

시계가 아닌 세상의 모든 기계가 제어장치를 달고 있는것 처럼, 신이 아닌 인간은 「양심」이라고 하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운전되어 살아가게 마련인 것이다.

신이 아닌 인간이 신같이 되려고, 그래서 제어장치를 떼어버리려고 할 때, 자신을 멸망뿐 아니라, 인류역사에 불행을 가져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현재도 그런 인간이 엄연히 존재하고 살고있다.

신흥종교 집단의 교주들이 그들이고, 독재자가 그들이다.

모든 짐승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제어장치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보면 신은 결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곧 알수 있다.

그들 짐승이 「자연」이라고 하는 질서(자연적 제어장치)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되어 있음을 볼 때 묘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같지 않는 인간을 불러 짐승만도 못한 자라고 부른다.

땅표면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가위」에 휘말린듯

추락 팬암기 사고원인 판명

지난 9일 추락사고를 일으킨 팬암 제트여객기 보잉 727이 이륙하기 전 뉴올린스공항 관제탑은 두차례 위험한 풍향변화경보를 발했다고 추락사고 조사에 나선 연방정부관계당국이 11일 밝혔다.

『바람가위(Wind Shear)』로 알려진 풍향변화는 지표면의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착륙하는 비행기의 사고원인이 될 수 있다.

추락사고를 일으킨 팬암제트여객기가 이륙당시 뉴올린스공항 주위에는 폭풍우가 몰려와 『바람가위』현상이 일어났었다.

◆슬픔-지난9일 팬암항공기추락사고로 집을 잃은 한모녀가 희생자추모예배에서 눈물을 흘리고있다. 이날 사고로 탑승자 1백43명 전원을 비롯, 1백53명이 사망했다. (케네, 루이지애너

◆부 음◆

차수환(본사발송부직원)씨의 부친 차정식씨가 15일밤 토론토자택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62세. 17일 중앙교회묘지(제인×스틸)에 안장된 고, 차정식씨의 유족으로 부인과 1남2녀가 토론토에 살고 있다.

강도예방 책자 RSI 무료 배부

로스만스담배회사부설 소매경영학연구소(Retail Services Institute)는 한국말로 된 상점강도예방 책자를 재배부한다.

무료로 배부되는 「Keep Alive Keep Safe」는 RSI 소장 피터·테자씨가 쓰고 유영린씨가 번역한 것으로 로스만스회사 한국인 세일즈·맨인 차영신씨에 전화 661-1921이나 RSI(789-7711)로 직접 연락하면 된다.

한편 RSI는 또 지금까지 코스를 거쳐간 한국인 소매상들을 전부 모으는 대규모 파티를 기획, 수강자들의 연락(Mr. Peter Tesar 789-7711)을 바라고 있다.

유방암방지 위해

X레이 검사가 필요하다

50세 이상의 중년 여성들은 유방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매년 X레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미암예방협회가 최근 발표했다.

이 협회는 11명중 1사람꼴로 유방암에 감염된다는 사실을 지적, X레이 검진을 통해 유방암 환자로 판명됐으며, 유방암에 대한 X레이 검진 성공율은 75%인 반면, 신체검사를 통한 성공율은 5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533-2361

〈독자의 광장〉

이 여름에

서 윤 정(토론토 교포)

벌써 7월중순이구나.

갑자기 서울생각이 난다.

서울엔 화사한 여자들의 옷모양이 거리를 환하게 하겠지.

그래! 서울에서는 여자들의 세련된 모습들이 눈을 예민하게 만들었다.

해서 나 자신도 은근히 나의 매무새에 신경을 쓰며, 외출할 때마다 거울을 유심히 들여다 보곤 했지.

하다못해 구겨진 청바지도 입고 나가기가 어색했으니까. 하나 여긴 그런 섬세한 패션은 보이질 않는다. 단지 눈을 번득이는 개성이 뚜렷한, 또 아주 원색적인 여자들이 신경을 자극하는 것같다.

오늘부터 왜그런지 토론토에 여름이 시작되는 기분이 든다. 이곳 캐나다의 생활이 벌써 8개월에 접어든다. 여기서 사귄 친구들이 다들 이곳 생활에 빨리 적응하는 것같다고 애기해 줄 때마다 나자신 역시 그런 것같아서 아주 당연하게 듣곤했다.

왜그런지 난 이곳에서의 생활이 편안하게 느껴진다. 한국에서처럼 관심갖고 싶지 않은 정치, 경제등의 뉴스들을 간단히 무시하며 지낼 수 있고, 타인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내 정신을 맑게 하고, 주관있게 남에게 피해 안주고, 발전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다. 연거픈 내적인 실수에 자신에게 싫증도 느껴왔지만, 해서 역시 권태감을 피곤하게 느낄 때도 있고, 노력하려는 자세가 허물어져 버리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 또 흐리멍텅한 자세가 계속인듯싶어 안타까와해온 것같다.

그래!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만 평등하지 않게 생활을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자유! 그 자유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며 살아가기도 한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이 자체가 싫지가 않고 아무런 꺼리낌없이 생활할 수 있는 이 사회가 난 좋은 것이 사실이다.

꽉 메인 단조로운 고독속에서도 자유! 이 자체는 사랑스럽고, 정신 없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내가 좋다.

가끔 가다 길고 보기 좋은 나무가 아무런 감흥이 없이 보여진다거나, 또 많은 레저시설 속에서도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마다 깜짝 놀라며 "내가 이렇게 감정이 무디어졌나?"하며 공허감에 쓸쓸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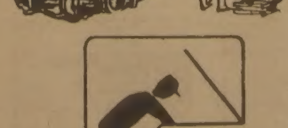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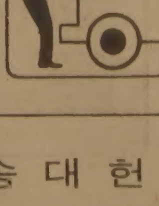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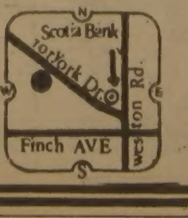
어차피 흔들거리는 인생이다! 휘청거리며 하루를 보내고, 또 난 거듭 희망속에 자그마한 소망 안에 꿈꾸며 기뻐한다. 왜인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단단히 서있는 나 자신을 진리속에 쑤셔넣고 즐거움을 쓰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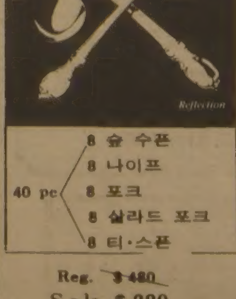
부지런한 생활 속에 꿈은 생기는 것같다. 여기 캐나다에 와서 많은 상념이 쿨어들었다. 생각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소화시키는 작업에 제 자리에 머무르는 발전 없는 생활의 계속이다.

어쩌다 펜을 들고 음악을 들어가며 글을 써 내려가는 내가 신기해 지는 순간도 있다.

열심히 살자!!

앞으로 나의 캐나다 이민생활을 밝고 멋있게 보낼 수 있도록 자신에게 굳게 다짐해 본다.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SANDY'S GIFT & CHINA
세일기간 : 7 월중순~ 8 월중순(1달간)
BRIDLE REGISTRY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 가정을 멋지고 아름답게 장식하려는 분들을 위해 고급 자기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시는 기회를 드리오니, 일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40 pc: 8 숲 수픈, 8 나이프, 8 포크, 8 살라드 포크, 8 티·스픈
Reg. $480
Sale $280
— 각종 고급 자기류 구비
◎최고급 독일 Rosen-thal
◎최고급 영국 Wedgwood(40% off)
— 고급 아일랜드제 Waterford Crystal(30% off)
— 재고 Stock이 제한되었사오니, 선착순에 한합니다.
— 고급 스텐레스 취급
Markham place
2900 Steels Ave. E.
(돈밀 × 스틸스)
☎ : 889-4216 Mrs. 허

30% ~70% Off

고급 아일랜드 크리스탈

〈소론〉

인류종말이냐, 핵군비축소냐 ⑤

강신봉(한인연합회 이사장)

지난 4회에 걸쳐 핵무기의 무한정한 산적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생각해 보았다. 미국이나 소련이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많은 핵무기를 만든 것은 아닌데 지나친 군비의 경쟁 때문에 필요이상의 과잉생산을 한 것이고, 그 과잉생산이 점차 통제불능의 위험성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인류가 핵무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인류자체가 파괴될 가능성으로 직면해가는 현실이기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국가와 사상을 초월하여 자기 생명의 보호권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생각만 하여도 소름이 끼치는 악몽에서 깨어나고 싶은 것이다.

이는 바야흐로 UN기구를 선두로 하여 세계각국에서 불같이 번져가고 있는 것이며, 무언가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된것이다. 결론은 오직 한 길이다. 핵군비의 축소 내지는 제거의 문제인 것이다.

군축문제를 놓고 UN에서는 1968년도에 그 첫번째 UNSSOD(United Nations Special Session for Disarmament)를 개최하였고, 금년도에 두번째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다. 약 3개월간 계속될 이 회의에서는 각국 수뇌들이 의견을 피력할 것이고, 가을쯤에는 미국의 레이건과 소련의 브레즈네프가 현단계에서의 군축문제를 결론짓는 단계로 이끌어갈 것이 분명하다.

작년부터 유럽을 기점으로 하여 세계로 번어나간 군중들의 데모는 지난 6월12일 뉴욕의 U.N.본부 앞에서 70—80만명이 절정을 이루었고, 여기에는 각국에서 모여든 평화주의자, 종교인이 앞장을 섰으며,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탄 폭격에서 살아남은 인사들도 많이 끼어 있었다.

캐나다에서도 수천명이 버스와 비행기를 대절하여 몰려가기도 하였다. 당일 소련의 모스크바에서도 데모를 벌이려고 하였으나 비밀경찰의 제지를 받아 2명이 체포되었다고 전한다.

실로 미소간의 군축문제는 오래전부터 SALT I및 SALT II(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라고 하여 미소간의 대화가 계속되었었으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폴랜드 사태등 팽창주의로 나아감에 SALT회담은 소련의 「양두구육」정책이라고 일축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묵살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평화주의·비핵주의 여론이 고조됨에 레이건 대통령은 지난 5월초에 군축재개에 관한 극적인 제안을 하였다.

레이건의 군축조건은 현단계에서 미소의 핵무기를 우선 1/3 감축하고, WARSAW PACT와 NATO군의 병력을 각기 70만으로 축소하자는 전제조건의 START(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를 시작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소련측에서는 감축보다도 우선 양국의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자고 반격하였으며, 3/1 감축은 미국의 핵무기 우위성을 주장하는 결론이 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양국의 제안 속에는 각기 다른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대륙간 탄도핵무기에 있어서 소련의 파괴능력에 1:3 정도로 약세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레이건정부는 앞으로 5년간에 걸쳐 국방비 16조달러의 어마어마한 액수를 책정하였고, MX 미사일, Cruise 미사일, Trident II 잠수함 계획, B—1및 Stealth 폭격기 생산등 압도적인 무기생산을 추진중에 있다.

이는 앞으로 핵무기의 능력이 소련보다 훨씬 능가함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소련으로서는 레이건 정부에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고, 이와같은 군사비 증가를 들어서 미국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선전과 비난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양국의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소련이 핵무기 동결을 펴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은 이미 신형미사일 SS20을 제작 완료하여 우랄산맥지방에 대량 배치하였고, 멀지않아 유럽에 미국이 배치하려는 Pershing II 미사일과 막대한 핵무기 개발을 막아내자는 심산이요, 그것만이 자기들의 핵무기 우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한 마디로 양국은 아직도 자기들의 핵무기 우세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은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않은 또 한 이유는 핵무기의 숫자를 제한한다고 하여도 그 크기와 성능과 배치방법이 다른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비교하여 균형을 잡는단 말인가?

지난 6월10일 독일에서의 NATO국 수뇌회담이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자유진영의 수뇌들은 아직도 군중들의 소리에 관계 없이 일방적이다. 그들은 군축문제에 있어서 소련은 양자택일을 하라고 제안한 것이다.

첫째는 레이건의 제안대로 현시점에서 1/3 축소를 택하라는 것이며, 둘째는 몇년후까지 경쟁을 더 계속하면 소련이 핵군비 "열세"를 면치못할 것이라는 일종의 협박인 것이다.

미국의 레이건 정책은 힘의 정책이다. 16조달러라는 거액을 써서 고차원 무기를 생산하려 함은 그것을 사용하여 인류를 파괴한다는 것보다 소련에게 경쟁에서 질 수 없다는 것 뿐이다.

핵무기의 위험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미국이 소련의 팽창주의에 뒤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군중들의 핵축소 요구사항도 자유진영에서 있는 운동이지, 공산주의자들이 떠드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일방적 핵축소는 약세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바야흐로 소련내에서는 멀지않아 브레즈네프가 퇴진하고, 새로운 인물이 세력을 인계받을 것이 분명한데, 이상과 같은 레이건의 군축제안과 세계적 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앞으로 군축회담을 재개에 큰 주목거리가 아닐수 없다.

미소 양국이 세계평화를 이름 걸어 대량으로 고차원 무기를 만들어 장사를 하고, 핵무기의 대량생산으로 인류를 말살하려는 불장난 속에 45억의 인류가 회생될 수는 없다.

U.N.본부에는 9백만장의 핵무기 축소 탄원서가 한쪽 구석에 쌓여있다. 매 1초마다 백만달러를 소모하는 군비경쟁을 일주일만 중단하고, 그 자금을 기아에서 허덕이는 인류복지에 사용한다면 이 지상에 배고픈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미국과 소련은 힘으로만 세계를 지배하려는 아집을 버리고, 모름지기 대국다운 철학을 입증하는 지혜와 아량으로 세계 인류의 소망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류의 종말이냐, 아니면 핵군비의 축소냐 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미·소 두 나라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존에 관한 중대한 과제이므로 모든 인류는 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끝)

이글은 강신봉씨가 5회에 걸쳐 토론토·스타등 영문잡지에서 다룬 내용을 발췌·번안한 것이었다.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꿈의 사냥이 <29>

冷血 ⑬

한달만에 또 전화… "W호텔로 나와라"

『뭐라고 헛소리했어요?』

그녀는 식은 밥을 흘리며 물었다.

『안 된다고 그랬어。뭘 안 된다고 그런지는 몰라도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꿈을 꿨어요。』

그녀는 금한대로 둘러댔다。남편은 꿈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제발 내일은 병원에 좀 가봐。』

『알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다음날에도 병원에는 가지 않았다。병원에가서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왕5백만원은 잃은 돈이다。모세가 그것으로 그쳐주었으면 좋겠는데。그녀는 자리에 누워있는 동안 내내 그 생각만 했다。

사흘 뒤 그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그리고 길이 터지고 처음으로 식사를 많이 했다。원래가 활달한 성격이라 회복도 빨랐다。열흘쯤 지났을 때는 그전처럼 명랑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모세가 나타났다 사라진지 한달이 지났다。10월 하순이었다。문자는 모세를 거의 잊은채 바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그때 꿈에 볼까 두려운 모세가 다시 나타났다。정오경이었는데 그녀는 외출준비를 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다。이번에는 가정부를 통하지 않고 그녀가 먼저 받았는데 수화기를 들고보니 모세의 목소리였다。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는 가슴이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귀여운 부인, 잘 있었나?』

조롱하듯 빈정거리듯 묻는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 전에 보내준 돈은 잘 받았다。내가 점심을 살테니 나와。』

『나갈 수 없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절하지마。』

『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지 왜 또 그러는 거여요?』

『나오라면 나와。W호텔 10층 중국요리집으로 나와。1시 정각이야。』

『안 돼요。』

그러나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

『악마!』

그녀는 터져나오려는 외침을 억누르고 집어삼키며 털썩 주저앉았다。손으로 이마를 짚고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악마가 다시 나타났다。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그녀는 이럴때가 아니라고 이번에는 기어코 결판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놈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는 한이 없을 것 같았다。어금니를 깨물면서 친구들과의 제모임 약속을 취소하고 W호텔로 나갔다。

모세는 일방적으로 음식을 시켜놓고 앉아있었다。그녀가 나올 확신하고 있었다는 듯이。그리고 역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곧 식사가 시작되었다。굉장한 성찬이었다。그는 먹기시작했으나 그녀는 손도 대지 않았다。

『먹어。』

『싫어요。』

朴 男 그림

6살때 아버지에 보낸 생일카드,재키가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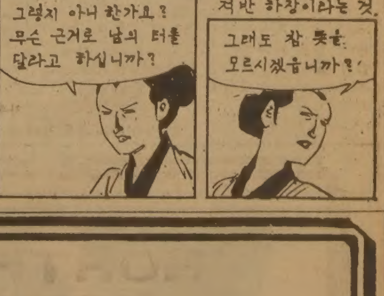
뉴욕의 찰스·해밀턴갤러리는 재키·오나시스가 6살때 그아버지 잭·부비에에게 보낸 생일카드를 경매에 붙였는데, 카드의 구입자는 다름아닌 재키였다고.

그녀는 옛추억을 보관키 위해 에이전시를 시켜 카드를 구입해 갔다.

이 카드는 부비에가족이 한때 거주했던 사우스암톤 집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초 예상 가격은 1배달러~1배50달러였으나 최종가격은 1배70달러였다.

◆재클린·오나시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프로축구 블리자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HOSANNA ART AND FRA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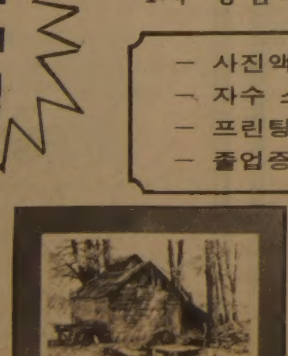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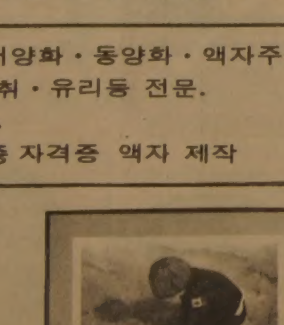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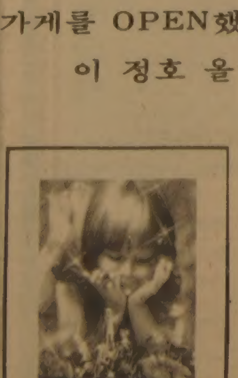
Opening Sale

SALE 20% off

특별할인기간 : 7월말까지

토론토 한복판(영×블루아)에 새로 그림가게를 OPEN했읍니다.
1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정호 올림 —

— 사진액자 · 서양화 · 동양화 · 액자주문
— 자수 스트레취 · 유리등 전문.
— 프린팅 그림.
— 졸업증 · 각종 자격증 액자 제작

2 BLOOR ST. W. (영×블루아)
CUMBERLAND TERRACE 내 (SUBWAY LEVEL)
TAKEOUT FOOD SECTION근처
☎ : 921- 8093

慶北제외 南部 解渴

어제새벽 장마성 소나기… 갈라진 논밭 촉촉히

淳昌百34、三千浦 81mm
安東·英陽지역은 안와
오늘·내일도 곳에따라 소나기

◇千萬金의 비 목타는 대지를 해갈시킨 단비가 내리자 모를 심는 농부들의 일손이 크게 바빠졌다. 【光州=聯合】

고대하던 장마비가 쏟아져 14일 하오현재 경북지방을제외한 전국이 완전 해갈됐다.

지난 13일부터 남부지방에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 비는 14일 새벽에는 곳에따라 소나기를 동반한 장마비로 변해 오랫동안 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호남지방과 경남지역의 갈라진 전답을 충분히 적셔주었다.

그러나 경북지방에서는 일부지역에서만 빗방울이 비쳤을뿐 본격적인 비가 내리지 않았다.

중앙기상대는 14일 우리나라 남해안지방 북위33도부근에 약하게 걸쳐있는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남부지방에만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기상대는 장마전선이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14일하오부터 大田이남지역에 한시간에 2mm가량의 적은비가 내리고있으며 15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가끔 곳에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16일엔 전국적으로 한차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날낮 12시 현재 강우량은 전북 淳昌의 1백34·7mm를 최고로, 전남莞島 1백10·0mm、경남河東 77·3mm등이었다.

…전 남… 전남도내강우량을 보면 莞島지방이 1백10mm를 최고로 ▲長興94·0mm ▲高興80·3mm ▲谷城78·3mm ▲潭陽81·9mm ▲康津76·0mm ▲海南67·5mm등으로 평균 65·1mm의 강우량을 보였다.

…전 북… 비가내려 농작물을 완전 해갈시켰다. 이날 비는 淳昌邑 1백34·7mm를 최고로 ▲南原 1백7·9mm ▲高敞69·9mm ▲任實46·0mm ▲完州40·3mm ▲扶安34·5mm등이 내렸고 기타 지방도 10~30mm가 고루 내렸다.

…경 남… 남해안쪽에 집중적으로 비가내려 ▲三千浦81·0mm를 비롯 ▲河東77·3mm ▲泗川74·6mm ▲統營69·3mm ▲巨濟65·0mm ▲密陽15·0mm ▲忠武64·9mm ▲梁山20·8mm ▲居昌18·0mm ▲陝川27·5mm였다.

도한해대책본부는 이번비로 완전해갈됐으며 오늘중으로 미이앙답 2백80ha에대한 이앙을 모두 마칠수있을것으로 내다봤다.

…경 북… 大邱5·2mm、浦項3·7mm、達城8·7mm의 강우량을보여 대부분이 10mm 이하였으며 한해가장 극심했던 安東、英陽、盈德등지에는 그나마 한방울도 비치지 않았다.

예년의半 미달 전체 강우량

한편 기상대는 남부지방에 장마비가 내렸지만 전체강우량은 예년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어 더많은 비가 전국적으로 내려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기상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예년의 경우 평균 6백mm 이상 내렸으나 올해는 3백mm안팎이었다.(도표참조)

◇금년 강우량 (7월14일까지) (단위: mm)

지역	예년평균	금년	비고
서울	634·7	241·5	—393·2
仁川	508·0	205·1	—302·9
江陵	552·8	333·9	—218·9
全州	645·2	366·4	—278·8
光州	581·3	355·0	—226·3
木浦	562·6	284·8	—277·8
麗水	788·8	483·3	—305·5
濟州	689·4	520·1	—169·3
秋風嶺	623·3	233·0	—393·3
大邱	459·0	216·0	—243·0
浦項	514·2	241·8	—272·4
釜山	755·2	471·1	—284·1
蔚山	608·9	334·8	—274·1

臨時국회소집 論難

3黨총무 會談

民正·民韓·국민등 3黨총무는 14일하오 총무회담을 열고 임시국회소집및 常委개최문제를 협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林鍾基民韓총무는 정부제출의법안및 議員立法문제를 다루기위해 8월말 임시국회를, 李東鎭국민당총무는 정부의 잇단 경제조치에따른 보완조치등 당면문제를 다루기위해 조속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李鍾贊 民正黨총무는 정부의법안이 충분히 넘어오지않는등 충분한 안건이 없다고 임시국회소집에 반대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또재무、상공、건설등 2~3개 常委 개최문제도 논의했다.

회담에서 林民韓총무는 앞서 제기했던 3黨대표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民正측에 촉구했다.

보일러 美GD社長 全대통령、접견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14일 상오 청와대에서 美제너럴·다이내믹스社의 올리버·보일러 사장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尹誠敏국방장관과 金相台공군참모총장이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또 이날 하오 카를로·야그메티駐韓스위스대사의 離任예방을받고 환담을 나눴다.

國政諮問회의 에너지政策등 청취

國政諮問회의는 14일 상오 서울 三清洞 회의실에서 제15차회의를 열고 徐相喆동자부장관으로부터 에너지정책의 당면과제및 추진방향에관해 보고를 들은뒤 의견교환을 가졌다.

崔圭夏의장 주재로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金相浹국무총리서리、徐동자부장관、金泰鎬청와대政務2수석비서관、孫守益총리行調실장이 참석했다.

慶北·釜山지역순시 權 民正사무총장

【大邱=黃昭雄기자】 慶北및 釜山지역 순시에 나선 權翊鉉 民正黨사무총장은 14일하오 大邱에 도착、李珍雨 慶北道支部長으로부터 黨務보고를 들었다.

李·張사건 3회公判

이란軍、攻擊개시

라마단作戰 이라크領 10km 진격

【런던·티론토14日AP聯=聯】 이란軍은 13일밤『이라크를 해방시키기위해』이라크軍에 새로운 공격을 개시、이라크軍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이란의 관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런던에서 수신한 IRNA통신은 軍코뮈니케를 인용、이란軍이 이날밤 9시30분(한국시간14일새벽5시)『라마단작전』을 개시하여 이라크軍의 첫번째방어선을 성공적으로 돌파했다고 전했으나 전투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캐나다의 CPNA통신은 이란교 혁명수비대와이란軍합참본부의 코뮈니케를 인용、『라마단作戰』의 목적이『회교영토(이란)를완벽하게 방어하고 이라크와이들을 지원하는 미국의 침공을 막기위한것』이라고 이란발로 보도했다.

앞서 이라크의 관영 INA통신과 사우디아라비아의 SNA통신은 바그다드방송으로 발표된 이라크軍총사령부의 코뮈니케를 인용、이란軍이 국경넘어의 바스라를목표로 이라크에 대해 공격을 개시했으며『이라크軍과 국민은敵이란의 새로운 공세를 격퇴 분쇄할것』이라고보도했다.

이란軍의 이라크공격은 22개월간 계속돼온 양국간의전쟁이 새로운 국면에서 다시 벌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레이건美대통령은 이날 찰즈·퍼시상원외교위원회위원장등 의회지도자들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이란의 이라크공격은 페르시아灣지역 전체를 위태롭게 할것이라고 말했다.

美행정부는 이란·이라크간의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이란이 이라크를 공격했다는 보도를 확인할수없다고 밝혔다.

【베이루트14日AP聯=聯】이란군은 국경넘어 이라크영내 10km까지 진격해왔다고 관영 이라크통신이 14일보도했다.

世界銀 보고서

한국經濟 衝擊조치 삼가야

不要不急투자사업 延期도

세계은행(IBRD)은 14일 한국경제는『최근에와서 가장어려운 시기에 처해있는 경제를 소생시키는 조치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적절한 경제활성화대책을 마련할것을 권고했다. 다만 80년대의 경제환경은 대단히 어렵고 불확실하기때문에 이러한 상황하에서의 정책전환은 점진적이고 실용적이어야하며 급격한 정책전환이나 경제에 충격을주는 조치는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은『한국、새로운 세계경제환경에 적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경제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나 4~5년의 기간을 두고보면 이용가능한 자원이 부족하기때문에 이점을 감안、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을 연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연기대상이되는 투자사업은 전력(해발전)、중공업(특히 세철、자동차、석유화학)、수송、주택、교육부문등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저축이 뒤따르지 못하기때문에 투자의사감이 불가피하며 투자조정은 교육부문의 지출삭감을 포함하여 가능한 전체투자지출삭감액은 5차5개년 계획기간(82~86년) 전체투자액의약 10%(1백20억달러)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은행보고서는 또 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 수출증대와 주택및 공공부문 건설등 건축활동을 자극해야하며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수출경쟁력이 보장될수있도록 환율을 신축성있게 상향조정 해야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늘어나는 노동력에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의 활력을 회복하려면 건축및 섬유·조선등 노동집약산업에 중점투자하라고 권고했다.

세계은행보고서는 이어 현재 경제활성화의 키를 쥐고있는 민간투자가 매우부진한 상태에 있으며 83년까지는 늘어날것같지않다고 분석하고 정부의 당면정책은 성장촉진과 기업의 이윤개선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촉진을 위해서는 환율인상과 건축활동을 자극하는 정책조처가 뒤따라야하고 기업의 이윤개선을 위해서는 통화공급의증대와 임금억제정책이 수반되어야한다.

이밖에도 세계은행이 권고한 정책방향은 다음과같다.

▲5차5개년계획 목표달성은 의문시됨 ▲늘어나는 실업률을 관리할수있도록 노동집약산업에 중점투자할것 ▲투자증가율이 낮아짐에따라 수출산업및 내수산업을 선별적으로 자극할것 ▲환율을 유동화하고 통화를 다소늘려도 82년물가상승은 한자리숫자에서 안정될것임 ▲저축률을 81년의 GNP대비 20%에서 86년에 30%수준까지 끌어 올리려는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금리및 재정의 규제、조세부담의 제고、농업 보조금폐지및 제로·베이스의 예산편성방침은 타당한 계획임 ▲향후 5년간 국내저축률은 적어도계획보다 10%정도 미달될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대비한 계획을 세워야한다 ▲향후 5년간 매년 90억달러씩 차입하려는 외자도입계획은 수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질때만 합당한 수준으로 볼수있다.

輸出융자 弗當85%로

延拂지원 2千億늘려

金商工 보고

金東輝상공부장관은 14일상오 경제활성화대책에 따른 보완시책과 상공부 업무등에관해 고위층에 보고했다.

이날 金장관은 부진한 수출을 촉진하고 내수창출을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수출금융의 달러당 융자율을 현행 81%에서 85%로 올리고 연불수출자금 지원규모를 6천5백80억원에서 8천5백80억원으로 2천억원을 늘리며 일부대중화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의 인하및수요자금융한도제 운용등을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내수성 소비재중 내수 진작을위해 수요자금융의 은행별 융자한도를 설정 운용하고 융자기간을 연장하며 중소기업에대한 제도금융 지원강화를위해 중소기업에대한 의무대출비율을 시중은행은 현행 35%서 40%、지방은행은 55%서 60%로각각 높일것을 추진하겠다고보고했다.

金장관은 또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강화하기위해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5천만원이하、시중은행은 5천만원이하의 소액보증에 대한 대출을 의무화하여 적격업체의 어음할인은 신용보증토록하며 상업어음의 韓銀재할비율 인상및 운전자금의 업체당 할인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또 6·28경제활성화조치의 보완을위해 수요자금융 지원강화와함께 국산기계구입자금 확대、기술개발및 산업연관효과가 크거나 대중화된 품목의 특별소비세율 인하조정、韓國重工業·東海펄프·溫山銅製鍊등 7개 중공업체에대한 정부지원 결정사항의 조속한 이행、문제산업의 합리화등을 피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도 金장관은 ▲해외경제협력조정기구의 설치 ▲업종별 품목별 산업구조개편및 지원제도개선방안의 7월말까지 확정 ▲석유화학 방위산업등 문제산업의 합리화대책수립 ▲생산성향상 품질관리기술개발촉진을 위한 대책등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社会漫評

하나 꺼지면 또 한곳이…

地平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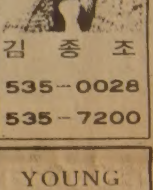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며칠째 계속되면서 주전자로 냉수를 꿀꺽꿀꺽하셔도 소피를 별로 보지않게된다. 온몸이 땀투성이고 숨마저 가빠진다. 일이나 운동을 안하고 방안에 가만히 있어도 보통 사람은 하루에 7백cc의 水分을 몸밖으로 발산하는데 땀으로 반、호흡으로반이다. ▼29도 더위에선 하루 물3ℓ를 땀으로 낸다. 1시간에 1백25cc이다. 한데 32도나되는 아스팔트길위를 걸을땐 1시간에 5백cc나 그땀을 흘린다. 운동중 많이 흘릴때엔 1시간에 최고 2ℓ다. 사람들의 水分이 냉장고의 서머스타트처럼 체온조절을 하고있는것이다. ▼또 사람의체온은 시간에 따라 다르며 정상인의 경우 새벽4시께의 체온이 36도 3분으로 제일낮고 저녁4시엔 가장높은 37도3분이다. 상위의 물을 몸에서 증발시키면 체온이 1도가량씩 내려간다고 한다. ▼사람은 全體의 恒常性維持기능이 있어 체온을 조절하는 것 이외에 생물의 독특한 리듬―바이오리듬이란게 있다고한다. 발암물질이 섞인식사라도 제때 먹으면 암에 안걸리고 암환자나 당뇨병환자들이 어느 특정시간엔 특별히 치료효과가 크다는것이다. 또 IQ、性格、정신병검사도 시간에 따라 다르다고한다. 신체리듬은 23日週期、感情리듬은 28日、知性리듬은 33日週期가있다는것이며 그리듬이 ＋에서―로 바뀔때 殺人사건이나 정신병발작이 많다고한다. ▼한여름의 24시간을 시간별로 보면 〈야밤부터 새벽4시〉까지는 청각이 가장예민하고 〈아침6시〉엔 副腎호르몬分泌가 많아지면서 心搏數가늘고 체온이 올라간다. 〈8시〉면 性호르몬分泌가왕성해지며 〈9시〉엔 鎭痛劑가 필요없을 정도로 痛覺이 둔해진다. 〈10시〉가되면 일의능률이 오르고 기억과 정신집중이 잘된다. 〈정오〉는 알콜에 감수성이 제일높아 이때술을마시면 하오엔 능률이 떨어진다. ▼食後인〈낮2시〉엔 活動力低下가현저해지고 〈3시〉께는 分析力과 創造力이최고조에 달한다. 〈4시〉엔 新陳代謝가 활발해지며 땀도이때 제일 많이 흘린다. 〈5시〉엔 냄새나 맛의 감각이 예민하고 청각이 다시날카로와진다. 퇴근시간인〈저녁6시〉쯤이면 공교롭게 육체활동력이 최고에 오른다. 〈7시〉엔 호르몬의변동으로 신경질이 나기쉽고 혈압도 높아진다. 〈밤8시〉는 體重이 제일 무거워지며 〈10시〉가 넘으면 호르몬分泌나 체온이 낮아지고 호흡도 느긋해진다. 〈야밤〉은내일을위한新陳代謝가 다시 활발한시간이다. ▼이처럼 독특한 몸의 리듬을 잘 알때 한여름을 건강하고 명랑하게 넘기는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르겠다.

한국일보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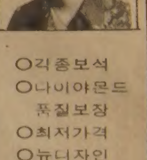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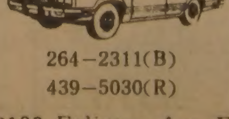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즐거운 서울방문은!
도와드리겠읍니다.
서울행 매주 출발
이민, 방문 초청안내
국내, 국제항공표
535-6004 535-8801
신속, 정확한 컴퓨터 써비스
서울여행사
IATA
631 A BLOOR ST. W. TORONTO.
최 동 주 (R)293-9970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 LEON'S / MCLEVIN / SHEPPARD / MARKHAM / HWY. 401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반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8900 〈R〉 (416)633−7892
채 준 성 (David Ch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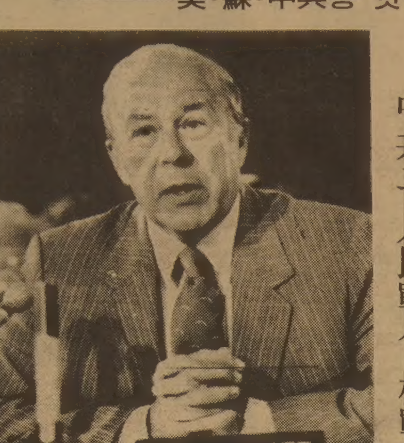
強大國들「힘바탕」防衛로

——美·蘇·中共등 잇달아 保守的개념 밝혀

美 對蘇경쟁엔 軍備확장뿐
蘇 核先攻에대비 戰力강화

美·蘇·중공등 강대국들이 최근 잇따라 군비확장에 바탕을 둔 보수적 방위개념을 밝히고 있다. 美국무장관에 지명된 조지·슐츠씨는 13일 上院인준청문회에서 對蘇외교는 힘에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 미국의 전통적 軍備개념을 강조했다. 또 소련국방상 드미트리·우스티노프는 12일 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를 통해 새로운 핵 독트린을 발표, 소련이 모든 사회주의국가에 방어체제를 제공하고 핵先制공격을 배제하기위해서는 전력강화가 그전제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공은 최근 對蘇전략에서 과거의 인민전쟁전략을 포기하고 핵무기사용을 포함한 적극 방위전략을 새로 채택한것으로 西方측은 분석하고있다. 반면에 긍정적인 군비축소를 위해 지난6월29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고있는 美·蘇전략무기감축협상(START)실무회담은 기존핵무기의 감축이냐, 현상동결이냐의 기본방향부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있고, 지난 6월초부터 한달간 열린 유엔軍縮특별총회도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中共도 人民戰서 核戰略방향 修正



◇신임美국무장관에 임명된 조지·슐츠 前재무부장관이 13일 그의 인준문제를 심의하기위해 열린 상원의 청문회에서 증언하고있다。【워싱턴13日AP電送=聯合】

【워싱턴14日=李文熙특파원】 레이건美대통령에 의해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조지·슐츠씨는 13일『美외교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미국의 외교정책은 대통령의 외교정책이어야하고 자신은 레이건외교정책의 최고수행자 일뿐』이라고 말했다. 슐츠씨는 이날 上院外交委에서 열린 자신의 국무장관 임명인준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힘 그자체가 對蘇협상의 기본요소가 되어야한다』고말하고 레이건 대통령의『힘의 외교』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9시30분부터 6시간45분동안 계속된 이날 청문회는 질의, 응답의 대부분을 레바논위기를 포함한 中東문제에 할애했는데 슐츠씨는 새로운 중동평화협상에는 팔레스타인대표가 참여해야하며 PLO와 레바논의 지휘권및 통치권보장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모스크바13日AP=聯合】 소련은 12일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에 강력한 방어체제를 제공하고 적에 대한『경고공격』을 배제하지않는 새로운 핵독트린을 공개했다. 국방상 드미트리·우스티노프는 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에 실린 장문의 논설에서 사회주의세계의 모든 국가들에 대한『신뢰할만한 방패』를 마련할것이라고 다짐하고 핵무기의 선제사용을 배제하겠다는 브레즈네프공산당서기장의 지난6월약속의 타당성에 대해 소련군장교들과 기타사회주의국가지도자들이 회의를 품고 있다고시사했다.

【北京13日AP=聯合】 중공은 그들의 공격을 받을경우 국토방위를 위해 종래의 인민전쟁전략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사용하는등 적극적인 방위전략을 새로 채택한것같다고 13일 서방군사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이 군사전문가들은 중공군이 소련의 공격을 가상, 지난달 소련군 수개사단이 배치된 外蒙古접경에서 7백㎞떨어진 전략요충지인 寧夏回族자치區에서 실시한 대규모 군사훈련에서 모의전술핵무기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西베이루트 封鎖강화

팔撤收거부 우려속 "忍耐에도 限界있다"

【베이루트·예루살렘 13日AP·UPI=聯合】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레바논철수를 위한 외교노력에 계속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으나 낙관적 분위기는 이제『실망과 우려』로 바뀌었으며 PLO가 이스라엘의 레바논철수요구를 거부하고있다는 인상을 갖기 시작했다고 이스라엘관리들이 13일 밝혔다. 이와함께 이스라엘은 PLO의 철수방법및 장소에관한 미국의 중재노력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12일밤 각1개연대씩의 전차부대와 기계화부대를 베이루트주변에 증강배치하는 한편 서베이루트에 대한 봉쇄망을 더욱 강화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한고위관리는 미국이 PLO의 평화적 철수방안을 검토하는동안에서 PLO게릴라들을 몰아내기위한 서베이루트전면공격을 감행하지않을 것이라고 밝혀 서베이루트결전을피할수있는 희망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시사했다.

폴란드 拘禁인사 一部석방

國慶日 앞두고、아직 2천명 殘留

【바르샤바13日UPI=聯合】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12월 계엄령선포이래 구금해왔던 인사들중 일부를 석방했다고 폴란드 자유노조 소식통들이 13일 전했다. 이소식통들은 오는 22일의 폴란드 국경일전에 1천명이상의 피억류자들이 석방될것이라는 최근의 풍문을 확인하듯 상당수의 피억류자들이 석방됐다고 밝혔다. 이소식통들은 현재 폴란드수용소에는 아직도 약2천명이 구금돼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황요한·바오로2세는 그가 희망했던대로 다음달 조국 폴란드를 방문하지 못할것이나 금년중에는 방문하게될것임을 시사했다고 바티칸에서 조셉·글렘프로마·가톨릭대주교가 밝혔다.

PLO、레바논撤收 정치적代價로

美公式 승인희망

【베이루트13日AP=聯合】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지난12년간 그들의 중동에서의 세력근거지였던 레바논을 떠나는데 대한 정치적대가로 미국의 공식승인을 원하고있다고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소식통들이 13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하는 이들 소식통들은 또 아라파트 PLO의장이 레이건대통령의 미행정부가 PLO를 공식승인한후 현재의 입장을번복, 미국이 제의했던 美6함대호위하에 해상으로 서베이루트를 철수하는데 응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레바논영방송은 레바논의 정치인으로 주요 협상중재자 역할을 해온 사에브·살람前首相이 하비브美中東특사와 아라파트의 정치보좌관인 하니·알하산간의『직접 협상』을 주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海外토픽

比법정、女優에 체포령

플레이보이誌 알몸포즈혐의

필리핀수도 마닐라교외의 법정은 플레이보이 잡지의 독일어판 3월호에서 알몸으로 포즈를 취했다는 혐의로 테레치·아그바야니(20·사진)라는 여배우를 체포토록 명령했다. 13일 보도들에 따르면 아그바야니양은 공중도덕을 해치는 영화나 인쇄물 서적등을 금지하고있는 필리핀의 형사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됐다. 【마닐라=AP】

★美國人 실제自殺率 늘어

TV劇 自殺악영향

미국의 TV연속방송극에서 자살기도 혹은 자살의 장면이 방영된후 실제 미국인들의 자살률이 현저히 증가한다고 캘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대학 사회학자들이 최근 주장했다. 이대학의 데이비드·필립스사회학교수는 77년도 건강통계에 대한 컴퓨터조사및신문에 소개된 연속방송극에피소드를 토대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밝히면서 또 치명적인 자동차충돌사고중 일부는 자살을위해 가장한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필립스교수는 그러나 자살자들이 실제TV를 보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수없기때문에 이같은 상관관계는 통계의 허구성에서 나온 것일수도 있다고 시인했다. 【샌디에이고(캘리포니아州)=UPI】

★마닐라市서 최고 17만원

개도살에 벌금형

마닐라시당국은 6일 새로운 시조례를 제정, 식용을위한 개도살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마닐라의 한 개도살장 사진이 유럽잡지에 소개된 후 충격을 받은 유럽및 세계각국의 동물애호가들로부터 이를 금지하라는 진정이 있은 후 취해진 것. 이와 함께 마닐라시당국은 다만 미친개나 병든 개에 한해 안락사시킬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법의 발효에따라 앞으로 위반자에게는 12~2백35달러(9천원~17만원)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마닐라=AP】

583·2801

메아리

물놀이

7、8월 바캉스때가 되면 프랑스에서「民族大移動」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귀에도 설지 않다. 프랑스인들은 거의 한달씩 집을 비우고 산과 바다로 찾아나서는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語의「바캉스」는 긴 여름휴가를 뜻할때 반드시 복수로 표기한다. 몇週씩 비운채 즐긴다는 뜻에서다. 우리생활속에도 어느새「바캉스」붐이 스며들어 여름 한철 웬만한 職場人들은 1주일이나 열흘정도 휴가를 즐기도록 되어있고 家長은 용기를 내어 일가권속을 거느리며 한번은 산이든、바다든「바캉스」를 다녀와야 이들에게 면목이 서게끔 되었다. 우리경우 얼마만한「大移動」이 일어나는지 그 집계는 없으나 작년 한해 줄잡아 東海岸에만 해만명이 찾아들었다는것을 보면「小移動」쯤은 일어나는셈 싶다. 바다나 강을찾는 사람들을위해 벌써부터 店頭에는 아·라·모드라는 수영복과 물놀이 기구들 선을 보였고 수영강습에 초대하는 광고들이 여기저기 나붙기시작했다. 여름철은 山을 타는것도 위험스런 경우가있지만、물가에 나가 수영이나 놀이를 즐기는데는 더 큰위험이 따른다는것을 잊어 안된다. 작년7월말 불볕더위가 내려쬐던 어느하루 전국에서 26명이 익사한 일까지 있었다. 治安本部는 지난 한해동안 익사한 3백35명에 대해 事故原因을 분석하였는데「부주의」가 1백96명、수영미숙이 88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또 바다보다도 하천이나 강물같은 內水에서 전체사고의 95%가 발생하였다는것을 보면 流速이 자주바뀌고、水溫변화이 심한 민물이 바다에 비해 더 위험한것 같다. 연령별로는 10세이하가 37%、10~20세가 35%에 달했다고하니 어린이놀이엔 어른들이 언제나 주의를 게을리해서 안된다는 경보로 들린다. 어린이를 비롯하여 水泳客이 쓰는 튜브、비치·볼、고무보트、귀마개、수영모자、물갈퀴같은 물놀이器具에 아직도 工業振興廳의 검사표시를 붙이지 않은 不良品이 점포에 나돌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있었다. 당국의 안全검사를 받지않은기구들은 아예 사지말 일이다. 물놀이 기구의 비닐두께는 최소0.3㎜(보트는 0.4㎜)가 돼야하는데도 不良品은 0.05㎜이상 얇아 안전을 보장할수 없는것들이라고 한다. 근소한 수치의 차같지만 생명의안전을 위해 양보못할 치수다. 사소한규격미달 그리고 사소한부주의가 커다란 위험을 몰고 온다는것을 바캉스철의 수칙제1호로 삼도록 휴가객에게 권해두고 싶다.

「軍事大國」노크하는 日本

집권 自民黨 헌법改正案 마련의 向方

武裝합법·軍費늘려 專守방위체제 전환

◇요꼬스까근해에서 훈련중인 일본해상자위대 전함단。국방비 上限線이 철폐되면 방위청은 해상방위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UPI】

【東京14日=宋孝彬특파원】 경제대국인 일본은 군사대국으로 조심스럽게 치닫고있다. 집권 자민당은 7일 헌법조사小위원회를 열어 무장자위대를 합헌적 존재로 인정하고 방위전쟁을 합법화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14일에는 방위관계자연석회의를 열고「방위비를 GNP 1%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조치는 보수우경화에 따라 일본정부가 헌법개정론과 방위비의 증강론을 공공연히 논의하도록 유도하고있는 뚜렷한 증좌다. 자민당이 소집한 14일의 연석회의에는 안전보장 조사회、국방부회、기지대책특별위원회등이 참가했다. 자민당이 마련한 방위력증강 촉정부건의안은 ①방위증강계획을 조속히 달성키위해 방위비의 지출이 GNP의 1%를 넘어서는것이 불가피하며 ②83년부터 실시하는 방위력증강 5개년계획을 조속히 달성토록 촉구하고 한반도의 전쟁에 대비한 이른바「有事立法」을 조속히 법제화할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방위비의 지출을 GNP 1%이내로 한정한 일본의 방침은 76년11월 일본각의에서 결정한것으로 비핵3원칙과 더불어 일본의 방위정책에 근간이되는 정책이다. 이 비핵3원칙과 국방비의 지출억제는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지향하는 것을 막고 평화헌법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정책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소련이 극동군사력을 증강시키자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강력히 요청함으로써 일본은 차츰 평화專守방위정책으로부터 적극방위로 전환케됐다.

일본은 81년 방위력증강 5개년계획을수립、인도차이나해와 인도양을잇는 해양방위를 전담키위해 대잠초계기와 P3C등 해상방위력을 증강시켰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불경기와재정면의 어려움을 들어일본은 방위력증강 5개년계획의 첫연도인 83년도 국방예산을 7·4% 증가하는데 그쳤다.

방위청은 방위력증강 5개년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최신정밀장비를 구입하는데 적어도 4조2천억엔이 필요하며 이에따라매년방위비는 10%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대장성과 대립했다.

이런상황에서 81년도에 수립한 방위증강계획을 완수하자면 방위비를 GNP 1%이내로 한정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이르렀다.

특히 미상원외교위원회는 방위비지출을 GNP의 1%이상으로 늘릴것을 내용으로하는 권고결의안을 상정시켜 일본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7·4%증액에 그친데대해 불만을표시했다.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은 평화헌법개정이나 국방비지출의 GNP1%초과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자민당은 장기목표를세워 무장도 합법화한 개헌과 자위력의 증강을 서서히 추진하고 있다.

스즈끼수상도 지난6일아침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방위비지출을 GNP의 1%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나 국제정세의 불황과 일본경제의 후퇴로 앞으로 상한선을 초과할수밖에 없을지 더 두고봐야알겠다』고 말했으며 미야자와(宮澤)관방장관도『국민총생산의 신장률이 둔화돼 방위비가 GNP의 1%를 초과할 가능성이 없지도않다』고 말했다.

인사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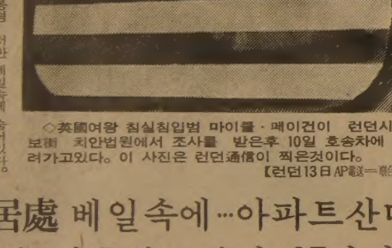
白堊舘 철책위엔 각종 레이다施設

엘女王 침실侵入계기 各國경호實態

엘리자베드 영국여왕 침실침입사건으로 연일 큰파문을 일으키고있는 가운데 대처영국수상은 13일 국회에 출석、존·멜로 경찰 부국장을 이번 사건수사반으로 임명했다고 밝히면서 다음주안으로 이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때를 같이해 영국의 매스컴들은 일제히 범인 페이건(30·무직)이 15살된 의붓아들을 구타한혐의로 지난5일 체포됐었으며 9일 버킹검宮을 침입했을때는 보석중 이었다고 밝혔다. 보도들은 또 페이건이 여왕침실에 침입했을때 여왕은 비상벨을 눌렀으나 작동이 되지않았으며 주변에는 경호원이 1명도없었고 사건발생 30분후에야 경찰이 달려왔다고 새사실을 폭로했다.

이처럼 여왕침실 침입사건은 영국국내는물론 전세계에 놀라움을 자아내면서 각국 지도자들의 경호문제에 관한 새로운 관심을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주요국가의 지도자에대한 경호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英國여왕 침실침입범 마이클·페이건이 런던시내 보街 치안법원에서 조사를 받은후 10일 호송차에 실려가고있다。이 사진은 런던통信이 찍은것이다。【런던13日AP電送=聯合】

▲미국=레이건美 대통령은 힝클리의 저격사건과리비아암살단의 미국잠입보도가 있은후 경호를 한층강화했다. 백악관주위에는 높이2.4m의 철책이 둘러처져있고 울과、관석、행동탐지기등 각종레이다시설이 불법침입자나 저격수의 접근을 적발해낸다. 백악관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이며 대통령이 외출할때면 위장 리무진을 동반하며 대통령전용 항공기에는 열추적 미사일요격장치가 돼있다. 초소도 20군데가 넘는다. 관광객들은 백악관에 출입할때면 반드시 금속탐지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련=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은 그가 현재 어디서 살고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고있을만큼 철저한 베일속에 숨어있다. 브레즈네프가 크렘린궁에서 2㎞가량 떨어진 한빌딩에서 여러번 투표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모스크바중심가인 쿠투조프스키·프로스펙트에 있는 한아파트에서 거주할것이라고 추측될 뿐이다. 그러나 일설에는 모스크바교외 다차에서 거주한다고도 하는등 종잡을수가없다.

蘇「브」居處 베일속에…아파트산다 추측뿐
日 宮城엔 경호원1천명 97년간侵入없어
佛 테러專門家상황점검 獨 주위엔 담장뿐

▲일본=히로히또(裕仁)천황과 그가족들이 살고있는 궁성을 경호원1천명이 24시간 경비하고있다. 높은담으로 둘러싸인 궁성주위를 권총을소지한 황실경관2백명이 순찰한다. 황실경찰서 기록상으로는 지난97년동안 외부인이 궁성을 침범한일이 한번도 없는것으로 되어있다.

▲프랑스=미테랑 대통령이 거주하는 엘리제宮은 내무성소속의 경찰 40명이 경비하고있다. 별로 특수한 경호장치는 없으나 최근 테러전문가들에게 엘리제궁의 안보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바티칸=요한·바오로2세교황은 성·베드로광장을 굽어보는 교황청건물4층 꼭대기방에 거주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교황청 출입때 6~7개의 검문소를거쳐야한다. 교황청 경호는 스위스인 경호대가 맡고있는데 작년 5월 아그자의 저격사건이 있은후 경호가 훨씬 강화됐다.

▲독일=슈미트수상관저에는 경찰관들이 24시간 지키고 있으나 건물주위에는 평범하게 담장을쳐놓았을뿐 특별한 장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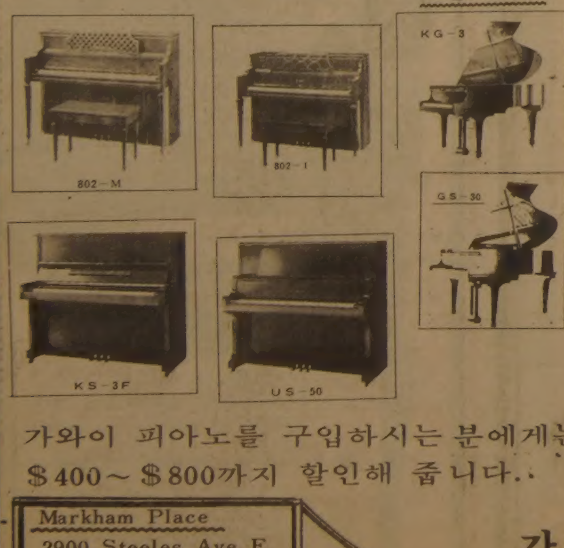
▲이란=테헤란근교 호메이니옹이 거주하는 건물은 혁명수비대가 경호하고있으며 옥상에는 對空砲가 설치되어있다.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의 파하드국왕관저는 물론 타이프의 하계별장은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경비하며 파하드국왕은 개인경호원을 따로 두고있다.

▲짐바브웨=지난 6월 무가베수상관저가 총격을 받은후 경호가 강화됐다. 무가베수상이 외출시에는 검은 방탄 메르에데스승용차를 사용하며 무장경찰을 태운 호위차 수대및 AK47소총으로 무장한 대통령경호원들이 수행한다. 【런던14日AP電送=聯合】

여름철특별대매출

가와이피아노및 올갠



가와이 피아노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400~$800까지 할인해 줍니다..

BONTEMPI이태리안 올갠

모짜르트 음악원
여름특강생 모집

~~ 기간 : 7월7일~8월25일 ~~

특수과목 : THEORY(GRADE Ⅰ Ⅱ)
HARMONY(GRADE Ⅲ)
HISTORY(GRADE Ⅳ)

담당교수 : MILA MULGREW,
BARRY SCHONFELD

수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오후12:30

수 업 료 : $250

일반과목 : 피아노, 바이올린, 전자올갠, 기-타(GUITAR), 플룻, 첼로, 성악

수업시간 : 월~금 오전10~오후8시까지
토요일 오전10~오후4시까지

수 업 료 : $81(9 LESSONS) 등록금 15불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ER (모짜르트 Music Center)
대표 윤 호 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뱀·토끼도 빌려줍니다

美加州국민학교에「動物도서관」…학생들에 人氣

=산 自然공부·깊은 生命愛 심어주기위해 11年前 마련

○…책대신 학생들에게 산 자연교육의 재료가 되는 동물들을 대출해주는 동물도서관(Animal Library)이 한 시골국민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티에 위치한 카혼파크국민학교 어린이들은 주말이면 學校도서관 앞에 늘어서서 뱀, 토끼에서부터 부엉이, 돼지까지 애완동물을 빌리느라 열심이다.

길이 2피트나 되는 뱀을 빌어 소중히 안고 다루는 매튜·돌위스군(11세)은『지난주에도 빌어갔었는데 책보다는 훨씬 재미있어요』라고 말한다.

그만 뱀이 진공청소기 호스속에 들어가 숨는바람에 1시간반동안 꺼내느라고 소동을 부리기는 했었지만 식구들에게 별 폐는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 매튜의 부모의 말.

학생들에게 산 자연교육을 시키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 동물도서관은 벌써 1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창설자는 더그·케이교사였다.

『어느날 한 학생이 주워온 날개부러진 비둘기를 온학급이 함께 치료해준것을 계기로 동물도서관을 생각해내게 됐어요. 어린이들에게 동물은 책못지않게 중요한 존재지요』

도서관 선반에는 책대신 우리에 넣어진 동물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 목록은 토끼, 쥐, 돼지, 비둘기, 제비, 뱀, 닭, 부엉이, 까마귀에서 새끼 악어까지 다양하다.

학생들은 평소에 동물들을 먹이고 우리를 청소하며 아플때 간호하는등 시중을 들어야하며, 각종 동물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해서 얻는「動物愛점수」가 높아야 주말에 동물을 집으로 대출해갈수있다.

때로는 시민들이 기증한 메추리알을 인큐베이터에 넣어 직접 부화시켜 동물 목록을 보충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생명에 대한 경이를 배우고 물론 자연과학을 깨우쳐 가지요. 뿐만아니라 핑서가 결핍된 현대어린이들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도 해줍니다』설립자 케이교사는 동물도서관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한어린이가 학교동물도서관에서 대출해온 뱀을보여주고있다. 『뱀과함께 노는것은좋지만 청소기호스속에 숨어버려 혼이났었다』고한다.

海外여성

障碍兒싸고 美에 다시 安樂死 논쟁

父母는 찬성 政府선 반대…병원에 압력

醫師들만 進退兩難

○…몇년전 植物人間 퀸란양을 安樂死시키는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일대 논쟁이 일어났던 美國에서 최근에는 심각한 장애자로 태어난 영아의 安樂死문제로 의사, 부모및 연방정부간에 공방전이 벌어져 의사들이 궁지에 몰리고있다.

이번 논쟁은「다운氏症狀」(일명 蒙古症=선천성 정신박약의 일종)을 갖고 태어난 영아와 二分脊椎(椎宮이 선천적으로 등쪽으로 열린 脊柱裂의 한형태)로 태어난 영아의 처리를 둘러싸고 비롯된것. 의사들은 이 장애영아를 살리려고했고 부모들은 安樂死를 주장했으며 연방정부는 만약 의사들이 장애영아를 살리기위한 노력을 포기한다면 병원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의사들은 장애영아의 부모와 연방정부사이에서 진퇴양란에 빠져버린것이다.

이문제에 관한 연방정부의 그같은 강경한 반응은 의사들이 장애영아를 죽게내버려 두었을때 관계공무원들이 이를 외면했다는 生存權保護團體들의 비난때문에 취해진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서 지난4월「다운氏症候」를 띠고태어난 남자영아의 경우로 의사들은 이 영아가 消化상의 문제를 갖고있어 정맥주사로 영양을 공급해서 키워야만 했는데 부모들이 그러한 지진아를 기르는 시련을 견딜수없다는 이유로 人工的 營養供給을 중지하라고 병원에 요구, 결국 이영아가 생후 6일만에 굶어죽음으로써 시작됐다.

원래 합법적 임신중절을 철폐하기위해 결성되었던 生存權保護團體들은 이번 安樂死시비가 생기자 일제히 들고일어났고 이들 단체의 변호사들은 大法院이 이병원에게 영아에대한 營養供給을 계속하도록 명령하라고 요구할 절차를 밟는도중 이영아가 죽고 말았다.

그러자 이단체들은 화살을 돌려 일리노이주에서 의사들이 二分脊椎증세 영아의 교정수술을 거부하고있는 사건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厚生省도 연방기금보조금에 의존하고있는 각병원들에게 만약「다운氏症狀」영아의 치료거부와같은 행위가 있을때는 보조금을 몰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生存權保護團體들의 주장을 지지하고나섰다.

연방정부厚生장관 리처드·슈바이커씨는『결함을 갖고 태어난 신생아의 보호문제와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인간으로서의 권리에관한 일반국민의 관심은 상당히 크고 정당한것이며 레이건대통령과 나자신도 그러한 관심을 갖고있다』고 말하고,『레이건대통령은 연방법률은 장애아들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대해 분명히 해둘것을 지시한바있다』고 밝혔다.

美에 임신·出産후도 쉬지않는風潮

150萬 姙婦가 失職 않으려 勤續중

자리바꿈은 禁止돼

○…미국에서도 임신과 함께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었던 것은 그리 먼 과거사가 아니지만 요즘에는 점점 많은 여성들이 임신·출산이후에도 직장에 나오고 있다.

오늘날 임신상태에서 직장에 나오고 있는 여성들은 1백50만명정도에 이른다.

이들은 왜 임신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니고 있을까. 이유는 물론 돈과 자기일을 잃지 않기위해서이다.

『20대나 30대후반의 여성들은 이제 더이상 자기일과 아기를 놓고 양자선택할 생각이 없읍니다. 그들은 둘다 원하지요』

임신부들의 직장근무는 남편이 아내의 일을 인정하고 가사일을 함께 거들어주어야만 가능하며 임신부자신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한다.

보스턴에 있는 COPE(임신·부모경험과의 투쟁)단체의 디렉터마사·이지씨는 임신한 고용인과 고용주사이에는 불신이 생기게되는데 이런때는 고용주와 임신부간에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만약 고용주가 임신을 꺼리는 눈치를 보이면, 그와 협상을 통해 보스가 원하는 바를 실행해야지요. 보스편에서는 임신부가 퇴근무렵 피곤해할경우 조금 일찍나와서 오후 일찍 퇴근토록 제안하는것도 좋겠지요』

임신에 대한 동료들의 반응도 여러가지가 있을수있다. 남자고용인이 다수인 기술분야에서는 견디기가 힘들지만 전통적으로 많은 여성들을 고용해온 회사에서는 임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동료들의 반응이 어떻든간에 임신부는 가능한대로 유쾌한 표정을 짓고, 임신에 관해 言及없이 이야기한다든지 하여 임신을 강조하지 않도록 이지씨는 충고한다.

미국에서는 지난 78년 임신차별법이 통과된 이후 고용주들은 임신을 이유로 고용인을 차별할수 없게되어있다. 즉 해고한다든지,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든지, 임신을 이유로해서 다른 직책으로 옮길수 없다.

임신으로 인해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때에는 지역 EEOC(평등고용기회위원회)나 유력여성단체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다.

한편 임신과 직장에 대한 여성들의 사고방식에 차츰 변화가 오면서 임신복에 신경을 쓰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보스턴에서「레이디·마돈나」임신복가게를 경영하고있는 재키·쿠란여인은『매시즌마다 직장여성을 위한 임신복이 더 많이 또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 말한다.

◇임신여성들위한 의상만을 제조하는 레이디·마돈나부티의 여름스타일。직장여성의 임신이 늘어남에따라 임신부에 대한 관심과 지출도 늘어나고있다.

現代人의 健康百科

코가 막혀있는 어린이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게되는 아데노이드 비대증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바 있다. 그러나 코가 막혀 숨쉬기가 곤란해지는 흔한 병이 한가지 더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鼻炎)이란 병이다. 이 두가지를 억지로 구별하자면 알레르기성비염은 코의 앞쪽이 막히는 병이고 아데노이드 비대증은 보다 깊은곳, 즉 코와 목사이의 목젖 뒤쪽이 막혀 숨쉬기가 곤란해지는 병이다.

알레르기性 鼻炎이 원인…毛類등 原因物質 알아내야

그러면 이런 병에 걸려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것이 문제로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모든 어린이들중 약 10% 정도가 이 병을 앓고있다. 병의 정도가 경하냐 중하냐가 서로 다를뿐 실제 환자의 수는 퍽 많을것으로 생각된다. 이 병은 만성적인 병이기 때문에 증상이 경한때에는 본인은 물론 부모들도 별로 큰 관심을 갖지않는 경우가 흔히 있다. 천식을 앓는 아이들 10명중 7~8명은 이병을 함께 갖고 있다는 사실로도 알수있듯이 천식과 이 병과는 서로 뗄수없는 관계를 지니고있다.

천식이나 이병은 그 원인 및 발생경로가 똑 같으며 증상이 나타나는 신체부위가 서로 다를뿐이다. 이 병을 앓는 아이들은 단순히 코만 막혀있는것이 아니라 콧물이 많이나오고 재채기를 자주하며 코가 간지러워서 손으로 코를 자주 비비게되는 특징을 지니고있다. 따라서 콧물이 많이 나오고 재채기를 자주하며 코가 막혀서 찍찍거리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병을 의심해야 되며 또한 천식이나 다른 알레르기성 질환이 같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된다.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집먼지, 먼지 진드기, 여러가지 털종류, 곰팡이, 음식물 또는 꽃가루등이 있다. 이밖에 갑자기 찬공기를 마시거나 페인트 냄새 기타 자극성 가스를 들여 마시면 병이 일어나므로 이들을「유인」(誘因)이라 부르고있다.

이 병을 진단하려면 여러가지 검사가 필요하게된다. 천식을 진단할때 실시하는 혈액검사, 혈청검사,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 콧물검사, 콧속점막검사, 때로는 엑스선검사까지 필요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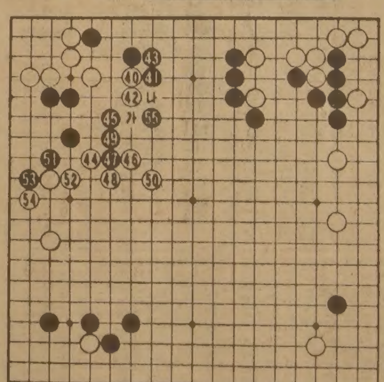
치료로는 원인이되는 물질을 제거해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 할때에는 원인물질을 조금씩 장기간에 걸쳐서 주사하는 면역요법을 실시하게된다. 어른들은 밤낮 코가 막혀서 찍찍거리는 아이들을 별로 대단하게 보지않지만 아이들에게는 몹시 불편하고 공부하거나 생활해 나가는데에 큰 지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것이다.

李 琦 寧

【醫博·延世大醫大 소아과교수】

제13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3局 第6譜 40~55
(각5시간·덤5집반)
黑(名 人) 曺 薰 鉉 〈2勝〉
白(挑戰者) 徐 奉 洙 〈2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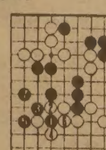


白40으로 끊었을때 얼핏 젖혀버린 黑41은 이 바둑을 어렵게만든 화근이었다. 지금 43자리에 뻗어두어야 하는것을 괜연히 반발한때문에 白42에 대해 黑43으로 이어야되었고 이순간 白44의 준엄한 공격을 당하여 일순에 곤란에 빠졌던 것이다.

名人은 고심끝에 黑45서부터 일로를 모색하고 白46에 대해서는 黑47로 이수로 빤빤하게「간」자리에 밀면 白「나」로 뚫고나가게 하여 黑만스럽다. 黑47은 이경우 묘수에 속한다. 그러나 이런 묘수를 두어야 할만큼 형세는 곤해져있는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순전히 살아가기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黑, 일순에 難局

게다가 모처럼 수를 던지고서도 名人은 후속수단이 너무도 빈약했다.



문제는 다음이다. 黑51로 參8단을 비롯한 여러고단자들은『黑51은 참고도의 黑1로 맥을찌어 이하 黑7까지 안형해야 되었다. 수순중 白2를 6이면 黑5에 찌름이는 맥이있어 黑이 역시 수습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전은 白54까지 白만 튼튼해지고 黑은 여전한 미생마로 앞길이 다난하다.

黑55로 가볍게 뛰어나갔지만 과연 어찌될것인지. 55의 선악가부는 다음보에서 자세히 따져보기로 한다. 【一凡】

美、對蘇禁輸강화로 日 經濟的打擊심각

미국이 천연가스및 석유관련기자재의 對蘇규제를 더욱 강화함에따라 소련과 공동으로 사할린의 석유및 천연가스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적타격은 엄청난것으로 알려졌다.

日本신문들은 레이건美대통령의 천연가스및 석유관련기자재의 對蘇수출규제강화조치가 발표된후 일본이 미국에대해 사할린석유개발사업에 투입하고있는 개발용美製기자재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조치로 금수해제를 해줄것을 요구했으나 美국무성이 駐日대사관을통해 이를 공식거부했다고 19일 대대적으로보도했다. 【東京=聯】

이란領內 이라크軍 10일내에 철수완료

사담·후세인이라크 대통령은 20일 이란이 이라크측의 휴전제의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라크군은 이란점령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이 철수작전은 10일안에 끝날것임을 밝혔다고 관영 이라크통신이 보도했다. 【베이루트=聯】

◇배터리用 屋內外겸용 휠체어

이스라엘의 아피킴집단농장에 있는 배터리추진식 屋內外겸용 휠체어. 폭이 좁아 복잡한 길모퉁이나 건물내 복도에서도 운행할수있고 회전의자를 부착하는등 장애자가 느끼는 心身의 불편을 완화할수있게 설계돼있다. 칼노이트란 이름의 이휠체어는 크기에따라 대강 1천5백~2천달러. 【外誌=聯】

일하며 생각하며

美國어린이들이 한국童謠에 고무줄뛰기…문득 故國생각이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위치한 학생수 약 5백여명의 한 아담한 공립국민학교。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가보면 곳곳에서 고무줄 뛰기놀이를하는 한국어린이들을 보게되는데 그중에는 심심찮게 미국아이들도 섞여 함께 고무줄뛰기를 하고있다。그 미국어린이들은 한국아이들이 고무줄뛰기의 박자맞춤을위해 부르는 한국동요들을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발음으로 따라 부르고있다。이런 광경을 한참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는 문득 이곳이 한국땅에 자리한 어느 한국인 학교이며 그 고무줄 게임을 하고있는 미국아이들이야말로 소위「소수민족」이 아닌가하는 착각에 빠져들곤한다。

이 학교는 바로 로스앤젤레스市교육국 산하 ABC통합교육구에서 선정되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시범으로 실시되고있는 학교이다。나는 매달 한번씩 연수에 참가하는 한국어린이들의 자연 발생적인 언어를 녹음기에 수록하고, 그배경이 되는 학과진행과정을 기록하기위해서 이곳을 방문하고있다。

홍 남 숙
<美이중언어연구소 한국어 연구원>

지금은 한국인 교사들도 여러명있고 한국학생의 수도 꽤 늘어서이 학교내 두번째의 다수 그룹으로서 이중 언어 프로그램 이외에도 여러가지 배려와 편의를 학교측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불과 삼년 전만해도 대부분 이민 초기가정의 자녀들인 한국어린이들이 겪었던 애로는 참으로 눈물 겹기까지 했다고 한 선생님은 내게 들려주신다。언어 불통으로자신의 행위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수 없으므로해서 부당하게 위법 티킷을 받는것 쯤은 다 반사고 한국에서는 꾸준히 우등생의 자리를 지켜오던 아이가 학급에서 학과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여 끝내 낙오되고마는 예 또한 빈번했다고 한다。다행이 지금은 이중언어 배경을 갖는 아이들 만으로 학급을 따로 편성하고,같은 언어배경을갖는 교사들이 지도하게 하는등 언어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한국인 학부모들의 그릇된 통념이다。즉 자녀가 한국어 상용 클라스에 들어가면 영어학습발달이 저해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속히 자녀가 그 학급에서 벗어나 미국인 교사와 아이들로 구성된 보통학급에 편성되어 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다。

최근 이중언어 아동의 언어발달과정에 관한 각종연구 보고서는 두가지 언어를 동시에 습득하는 과정이야 말로 아이의 인지 발달에 큰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그 두가지의 언어가 상호작용하여 양자의 개발을 촉진시킨다고 보고하고있다。아울러 모국의 언어 문화 풍습등에대한 강한 자부심없이는 어린이가 장차 미국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그들과 어깨를 겨룰수가 없음을 전해주고있다。

현재 미연방정부에서는 교육예산의 막대한부분을 이중언어아동을위한 효율적 교육방법을 연구하는 작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한국어를 모국어로하는 아동들을위한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한국어 프로젝트도 포함되어있다。그것은 이나라에 거주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언어집단들을 생각할때 더없는 행운이라 아니할수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학부모들이 이새로운 교육제도에 대해 거부반응만을 보이고 있다면 이야말로 가슴아픈일이 아니겠는가。요즘 서울에서 어린이들에게 일찍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붐이 일고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또한 한가닥 우려를 갖게된다。「내것」에대한 가치파악과 프라이드없이 단지 實利를 위해 외국어에 휩쓸리는것은 차라리 英語를 못하는 것보다 나을게 없다는 생각때문이다。확고하게 다져진「내것」위에 심어진「남의것」이라야만 참된의미의 내자산이 될수 있을 것이다。

【Nam Sook Hong/19205 Albert Ave/Cerribos Calif. 90701/U.S.A】

詩와 그림이 있는 여름

살이 녹는다

詩 鄭 玄 宗
畵 李 泰 吉

여름 바닷가
모래 위의 발자국
속에 햇빛 가득,
밤마다 모래 위의
가슴 자국
속에 밤바람 가득
파도 소리 숨 소리 가득,
별빛과 눈맞춤
그대와 입맞춤
여름 뜨거워
살이 녹는다
여름 화려해
육체도 화려해
물 향기에 젖어
살이 녹는다.

MLS
주시회사 황운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VARIETY STORES
주매상 $14,000 Rent $4,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14,500 Rent $5,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8,500 Rent $800 4년+5년 가격 $110,000
주매상 $7,000 Rent $1,720 4년+10년 가격 $75,000

VARIETY STORE와 BUILDING
1)주매상 $11,000 코거빌딩 다운타운, 아파트 5채,
가격 가게 $129,000 빌딩 $269,000
현금다운 $150,000,00
2)주매상 $7,500 코거빌딩 다운타운
가격 가게 $70,000 빌딩 $360,000 아파트 4채
현금다운 $200,000,00

DONUT SHOPS
1)주매상 $8,500 Rent $2,250 $350,000
2)주매상 $6,500 Rent $3,000 $200,000

VARIETY STORE LOCATION
1) indoor Mall Rent $7,00/SQF, 5 Years+5 Years
Side 2100 SQF,2)개인 Building Rent $6,00/SQF,
1500SQF, 5 Years+5 Years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수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土地구획정리 둘러싸고 巨額뇌물

大田전副市長등 8명拘束

【大田】大田지검과 충남도경은 14일 大田시청 공무원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국민주택신축공사 감독을 둘러싸고 거액의 뇌물을받은 혐의를잡고 수사에나서 大田市토지구획정리과장 李輔恒씨와 환지계직원 吳承白(40), 환지계전직원 金相謙씨(48) 등 3명과 도개공 大田지사 도시계직원 趙炳學씨 (49)를 뇌물수수혐의로, 大田山城지구 구획정리사업조합장 李承圭씨 (62·전大田市부시장)를 업무상배임및 뇌물공여등 혐의로, 山城지구 구획정리조합 조합원 尹炳玉씨 (47)를 공갈혐의로 구속하는등 모두8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조합원 郭世烈씨 (42)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의하면 조합장 李承圭는 지난80년4월 大田市中區山城洞산12일대 6만여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서울의 K건설에 33억원에하청주다음 조합설립비등 지원금명목으로 K건설로부터 지난3월까지 5회에걸쳐 모두 1억8백여만원을 받아 이중 3백80여만원은 구획과장 李씨등 공무원4명에게 나눠주고 5백50만원은 자신이 유용한 혐의이다。

또 조합원 尹씨와 郭씨등 2명은 지난해3월14일 한일은행 大田지점에서 조합장李씨에게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위협, K건설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가로챘다는것。

경찰은 K건설이 山城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5회에 걸쳐 2억5천여만원의 지원금을 주었고 조합장 李씨가 1억8백여만원만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나머지1억4천여만원의 행방을 쫓고있다。

한편 大田지검도 이날 大田시청주택과 정리계장 조갑현씨(39)를 뇌물 수수혐의로、같은 직원 김덕제씨(30)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서한건설(대표 김윤영) 柳川국민주택공사 현장소장 권성혁씨(31)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리계장 조씨는 지난1월부터 大田市中區柳川洞1901 柳川국민주택공사 현장감독 책임자로 근무중 지난달 30일 공사현장사무실에서 소장 권씨로부터 공사감독처리를 잘봐준다는 조건으로 25만원을 받은것을 비롯, 4회에 걸쳐 모두 1백18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또 정리계직원 김씨는 설계감독을 하면서 지난3월부터 4회에 걸쳐 현금 1백만원을 받고 공사현장에서 시멘트·골재등 2백20여만원어치의 건축자재를 빼내 大德郡懷德面邑內里308에 짓고있는 자기집 신축공사장으로 운반사용한 혐의이다。【鉉】

美육군、미망인 訴請거부

韓國戰참전 포로된후 敵에협력 戰後 불명예除隊한 유일한 將校

【워싱턴13日AP聯】美육군은 13일 韓國戰에 참전했다가포로가돼 적에게 협력한 혐의로 전후 불명예제대와 함께 투옥됐던 유일한 美육군장교인 故로널드·앨리 前美육군소령의 억울함을 규명해달라는 미망인 어나·앨리여사의 소청을 거부했다。

해리·월터즈 美육군성차관보는 이날 5명의 육군성관리들로 구성된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지난2월 이 소청을 심사한결과 앨리 前소령에 대한 불명예제대조치가 『적절하고도 정당한』것이었다는 결정이 만장일치로내려졌다고 밝히고『자신도 이같은 결정을 승인했다』고말했다。

한편 남편의 무고함을 밝히기위해 두번씩이나 소청심사를 제기한 바있는 故앨리여사는 소청심의위에서 증언을 통해 『남편에 대한 판결은그릇된 것이었으며 남편은 당시 美國사회에 팽배해있던反共매카시시대의 제물이된것이라고 전제하고『따라서 이같은 판결은 마땅히 취소돼야할 뿐아니라 남편에게 명예제대의 명예가 주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故앨리前소령은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지난50년12월 중공군의 포로가 돼 北傀軍포로수용소에서 33개월동안 생활한후 종전과 함께 풀려났다。그러나 그는 포로생활중에 적군과 내통·협력한 혐의로 기소돼 55년 美육군 포트·미드군법회의에서 불명예제대와 함께 10년간의 중노동형을 선고받고복역한바있다。

그는 그후 형기가 5년으로 단축됨에따라 석방돼 생활하다 지난 78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약속어음 훔쳐내 愛人줘 유흥비로

서울西大門경찰서는 14일 조흥은행 龍山지점행원 李明順양(25·서울永登浦區新吉5洞144)과 애인 尹起動씨(29·사기전과2범·淸州市內德洞576)등 2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의하면 李양은 지난해2월 조흥은행 大林洞지점에서 온라인담당직원으로 근무할때 고객 李鎔永씨(52·서울城北區長位洞219)가 맡겨놓은 三潮주택발행 1천만원짜리 약속어음1장을 훔쳐내 애인 尹씨에게 건네주었고 尹씨는 이를 9백10만원에 할인해 유흥비로 썼다는것。

“2億원 받은건 事實이나 合作銀 청탁名目 아니다”

——李·張 어음사건 3回공판서 李圭光피고인등 陳述

“行長준 1억5천 年末인사” 張

“李·張의 현금실력믿고 貸出” 林

私債業者들 어음割引해준 事實 모두 시인

李哲熙·張玲子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에대한 제3회공판이 14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許正勳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려 하오7시께 폐정, 이사건에 대한 사실심리가 이례적인 초스피드로사실상 끝났다。이날 공판에는 李·張부부를비롯、李圭光피고인과 전朝興은행장 林在琇피고인(51)등 조흥은행관련자 5명、사채업자10명、共榮토건관련자4명、金守哲피고인(52·張피고인의 전남편)등 모두21명이출정했다。검찰측에서는 대검중앙수사부 2과장 成敏慶부장검사、4과장 申健부장검사를 비롯、서울지검 李明載、鄭烘原、安大熙검사등 5명이관여했으며 출정피고인의 담당변호사18명이 나왔으나 李圭光피고인만은 변호사를 선임하지않았다。

이날 李圭光피고인은 李·張부부로부터 82년2월하순과 3월하순 두차례에 걸쳐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받은것은 사실이나『韓·日합작은행설립과관련、관계공무원에대한 청탁명목으로 받은것은 아니다』고 검찰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검찰은 2억원가운데 처음 1억원은 아들결혼식 축의금이나 생활비명목이지만 나중에받은 1억원은 韓·日합작은행설립청탁명목으로 받은것으로보고 1억원에 대해서만 특가법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했었다。

李피고인은『지난2월 李·張부부가 사파리 클럽결혼식이끝난후 집에찾아왔을때 韓·日합작은행、경주유스호스텔、金山빌딩등 종합적인 사업얘기는 했지만 합작은행설립하는데 힘써달라고 특정지어 얘기한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李피고인은 이어『어마어마한 사업계획을 세우고청탁하는 사람이 계획서 한장준적없고 설명도 제대로하지않았는데 부탁이란말도안된다』고 공소사실을 완강히부인했다。

李피고인은 2억원가운데 처음1억원은 보관했고 나중에받은 1억원은 생활비등에 썼다고 진술했는데 처음받은 1억원에대해서는 검찰직접심문에는『장학기금명목이었기때문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부보충 심문때는 진술을번복하기도했다。

李피고인은 또 李·張부부의 어음거래를위해 기업이나 은행관계자에게 청탁한 일은 없으며『비호세력으로 오인될만한 행동을 과시한적도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林在琇피고인은 共榮토건과 日新제강에 수백억원씩을 지급보증 또는 당좌대월해줘 은행에 손해를끼쳤다는 업무상배임 부분에대해『▲두업체가 2、3년안에 재무구조가 정상화될 업체로 봤기때문이지 李·張 부부의 자금사정편의를 봐주기위한 것은 아니었고 ▲연체상태에서도 대출을해준것은 李·張부부가5백억원가까이자금조성을해줬기 때문이었다』고진술했다。

林피고인은 대출과정에서 李圭光피고인등 영향력있는 사람의 압력을 받은바없으며 롯데호텔 지하일식집 벤케이에서 張여인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것은 사실이나 17일후에 되돌려주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張玲子피고인은 이부분에 대한 검찰심문에서『대출청탁으로 준돈이아니며 연말인사로행장에게1억원、전무·상무등 간부들에게 전해달라고 5천만원등 1억5천만원을 전네주었다』고 진술했다。

張피고인은 이밖에 검찰이 조사한 최초자금이 20억원인데도 1회 공판에서 3백억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에대해『20억원은 현금이었고 나머지 2백80억원은 10여년동안 골동품을 모으는데 소요된돈을 말하며 골동품을 81년초에 환가계산할때 3천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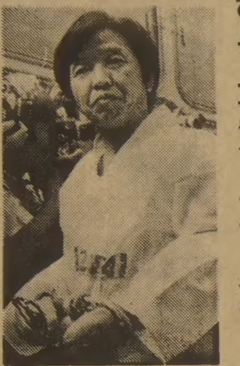
한편 朝興은행의 지점장들은 검찰 직접심문에서『지점장은 상부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대출승인신청서에 타당여부를 기재해서 올린뿐이다』고 진술、은행장과 공모해서 부당대출해줬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듯한 진술을했다。

이날 공판에서 사채업자들은 李·張부부의 어음을할인해준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나 일부 피고인은▲할인액수가 공소사실보다 적거나▲자신들은 진짜전주가아니며 중개

○林在琇

金守哲

張東浩


李殷圭

○郭慶培

○金泳鎬

“조용히 審判받으려 辯護人선임안했다”

李圭光피고인

○…이날 낮12시7분께 흰모시한복차림으로 출정한 李圭光피고인은 초조해 보이지 않았고 검사심문외에도 자신의 심경、신분관계、사생활등에대해 미리 준비한듯 상세히 설명했다。

『李·張부부를알고있느냐』는 검사의 첫질문에 李피고인은『몇가지 먼저 말씀드릴것이있다』면서 자신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이유는『조용히 심판을 받기위한것이다。집안일을 가지고 손아래사람과 서로 옳고 그르다고 시비를 가리고 싶지 않으며 나와 張여인의 진술이 대치되는 부분은 張여인의말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李피고인은 또『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 사실이있느냐』는 물음에는『필요이상의 오해나 여론의 지탄대상이 되기싫어 일상생활에두척 몸조심을 했다』고 장황하게 설명。

그는 그 실례로▲사무실에서 퇴근하면 어떤일이있어도 집에 돌아와 식사를했고▲사람을 만나지 않기위해 漢南洞 외국인아파트에서 살고있으며▲사우디에서 근무하는 큰아들을 돌아오지 못하게했고▲둘째아들은 회사에서사표를 내게해 미국으로 보냈으며▲세째아들은 남미에 농업이민을 보냈다고 했다。

그는『세째 아들이 이민을 안가려고 발버둥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아들을 외국에 보낸것은 이용당할 우려가 있기때문으로 대통령임기가 끝날때까지들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외국에 출장갈때와 모친상을 당했을때 이외에는 사람을 만나지않았으며 이를위해 주말에는 가족들과 운동을하며 지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호세력으로 오인될만한 행동을 한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오해를 받기싫어 굉장히 몸조심하는 고롭고 스러웠다。지금 여기와서 있는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또『李·張부부가 韓·日합작은행설립과 관련、이를 힘을써주면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국무총리、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등과 이야기를 해야한다는데 나는 군출신이 아니라 사람은 전혀 모른다。대통령이 취임한후 한번도 만난일이 없다。연락한번 한일이 없다는것은 張여인이 더잘알고 있을것이다』라고 답변했다。

日警、한국인 둘 檢擧

히로뽕 60億원어치 密搬入혐의

시가 60억원상당의 히로뽕(7kg)을 일본에 밀수하려던 전釜山시장 金모씨의 아들 金昌煥씨(25·미국거주)가 지난 5월23일 일본 나리따공항에서 일본수사당국에 검거돼 조사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일본경찰은 이와관련、서울의 관광요정 春陽閣 주인 李知映씨 (55·여)도 연행、공범여부를 추궁중이다。

金씨는 지난5월23일 하오 자신이 경영하는 미국의 슈퍼마키트에 근무하는 우루과이여인의 딸(여대생·19)가방밑창에 히로뽕을 숨겨들어가다 공항에서 검거됐다는것인데 비닐봉지9개에 7kg의히로뽕을 나누어 숨겼다는것。

일본세관은 金씨가 묵을 호텔을 春陽閣주인 李씨가 예약했다는 사실을밝혀내고 이들보다 열흘먼저 입국한 李씨도 검거했다。

韓英洙 民韓의원 議員職사퇴 의사

간통혐의로 구속기소된 民韓黨의 韓英洙의원이 14일의원직 辭退의사를 밝힌것으로 변호인단이 14일 전했다。

韓의원의 의원직사퇴 의사는 14일상오 면회한 변호인단의 睦堯相、朴炳一의원에게 전달됐다。

睦의원은『韓의원이 告訴취하되는대로 의원직을내놓겠다는 의사표시와함께 이와관련한 모든일의처리를 변호인단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수석對決

「李·張부부」맡은 文相翼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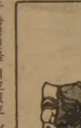
超 스피드 審理와 「눈총」이 變數로…

아무리『큰손』이더라도 공판정에 서면 별도리가 없다。어떻게 보면 한낱 피고로에 불과하달수도 있을 것이다。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국민학교 신입생처럼 움직여야하고 변호인의 코치에따라『계산된 말』만 해야하는 신세를 면치 못한다。

文相翼변호사(53·사진)。그는법조계에선 널리 알려진 ㅜ지만 李·張부부의 변호를 맡아『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인물이 된 사람이다。애써 기자의 눈을 피하려는 그를 끈질기게 따라잡다보니 월드컵결승전의 어느나라 감독같은 표정을 지었다。

수많은『눈총』에 지질린듯한 그 표정… 실제 그는 四面楚歌의 신세다。연부역강한 검사群이 그를 상대로 총력전을 펴고있고 기업체와 은행간부들을 맡은 쟁쟁한 동업자들은 슬그머니『책임』을 李·張부부쪽으로 밀고있으며 만만치 않은 정예 재야 후역시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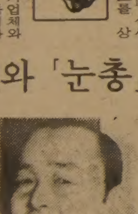


그러나 그는 잘 계산된 스타트를 보였다。張玲子여인으로 하여금 낭낭한 목소리로『경제론』을 펴게했다。張여인의 실물경제관이 재판부의 심증형성에 한 역할을한다면 그것은 사기부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것이라고 겨냥했을것이다。그리고 그 도도한 변설의주인공 張여인을 울렸다。간청하고 낮은음성이었지만 정곡을 찔렀다。눈물을 흘리는 큰손…그것은 여론을 십분 의식한 하나의『연출』이었으리라。

범행동기와 과정을 대국적으로 설명케 한뒤 그러나 결과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으니 달게 처벌 받겠다는 식이다。

그는 검사재직시 중앙정보부감찰실장으로 파견근무했을때 당시 제2인자였던 李哲熙씨를 상사로모신 인연때문에 변호를 맡게됐다。

李씨는 東京우체국근무당시 우편환절취사건으로 복역한 전과사실과 日本나까노(中野)정보학교졸업이 허위라는 검찰공소사실에대해 먼훗날 이를 꼭밝히겠다고 장담했다고 전한다。그가 들려준얘기로는 나까노정보학교는 철저한 신분은폐를위해 일부러 전과사실을 조작해 놓는다는것이다。물론 알쏭달쏭한 얘기다。또 張여인은 늘 남편李씨의 건강상태를 세세히 묻고 영양가있는 음식과 옷을자주 갈아들여달라고신신당부하더라는 점도 전하는걸 잊지않는다。



소송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공판정은『머리싸움』을 하는 곳이다。그래서 판사、검사、변호사의 智謀와 지능지수를 많이 따진다。사건의주심 李珍愛판사가 서울法大와 사법고시의 수석합격자란 꼬리는 그런 맥락에서 화제다。그렇다면 文변호사도 만만치않다。그도 서울法大수석입학과 수석졸업에 고등고시 수석이었기때문이다。세속적인 표현이라면『수석』끼리의『대결』이랄까。하지만 이대결에는 큰『變數』가 있다。

공판이 유례가없는 초스피드로진행되는데다가 개인이 감당키는 어려운『수많은 눈총』이 공판과정을 지켜보는 그묵이한 분위기 말이다。【林承茂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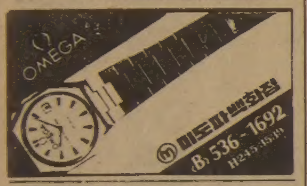
포장마차 收益金시비 쌍동이동생찔러 숨져

14일 새벽1시10분께 서울江南區論峴洞165 제일은행 論峴洞지점 옆골목에서朴모군(19·서울江南區內谷洞)이 쌍동이동생 正淵군의 왼쪽가슴을 칼로찔러 숨지게했다。

이들은 12일부터 집에서대준 15만원으로 포장마차집을 함께 개업했는데 13일의 매상액을 계산하면서 차이가생기자 밤11시께부터 소주2홉을 나누어마시고 다투던중동생의 욕설에 화가난 형이 칼로 찔렀다는것이다。

日어선 2척 北傀에 나포

【東京13日聯】일본어선2척이 13일상오 동해상에서 北괴에 나포됐다고 일본 해상보안청관계자들이 밝혔다。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IMMIGRATION CONSULTANTS

이민에 관한 상담환영

- 모든 스폰서쉽 경우
- 모든 종류의 비자관계
- 재판받기전 출정
- 이민국에 가기전 상담
- 미국·캐나다에 있는 부사나 회사에 독립고용 관계

※ 더이상의 문의는 ☎ : 291－9590
ZAIDI& ASSOCIATES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꾀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9, 6개월 : $50, 년 :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맛사지

(near airport)
MISSISSAUGA

"86亞洲게임·88서울올림픽 「메달따기」總力戰 펴겠다"

선수強訓등 강력推進
11월印대회 北韓압도
鄭周永 신임體育會長 취임포부 밝혀

鄭周永 신임 대한체육회장은 14일 취임 첫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여망에 따를수있도록 체육회 각종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鄭周永회장이 취임 첫기자회견서 포부를 밝히고있다。

86년 아시안게임、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많은 메달을 딸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는것이 자신의 지상목표라고 밝힌 鄭회장은 선수선발과 강화훈련은 이미 준비되어있는대로 추진해나가고 보완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鄭회장은 오는 11월의 아시안게임 남북대결 전망에 대해 『前집행부가 세워놓은 방안을 토대로 「북한 타도」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金鍾烈부회장

◇金宇中부회장

◇金 漢부회장

◇金鍾圭부회장

◇金相謙부회장

印아시안게임 出戰 체조男女 대표확정

11월 印度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남녀체조 국가대표선수가 확정됐다。

◇선발전 성적…

▲남자=①韓忠湜(한체대) 57·10 ②蔡光錫(한체대) 56·55 ③羅瑠(경희대) 56·25 ④張泰銀(경희대) 56·05 ⑤孟楠京(한체대) 56 ⑥李貞植(서울체고) 55·45 ⑥南勝久(한체대) 55·45

▲여자=①鄭鎭愛(동아대) 37·80 ②李貞熙(청주여고) 37·55 ③李吉林(동아대) 36·55 ④羅善任(서울체고) 36·50 ④李順禮(경희대) 36·50 ④郭善行(한체대) 36·50 ⑦柳로金(서울체고) 35·90

새執行部 구성
부회장2·理事10명 補強

기자회견에 앞서 鄭회장은 金鍾圭(前 서울신문 사장)、金相謙씨(고려대 교수)를 새 부회장으로한 30명의 신집행부를 구성、발표했다。

상근 부회장 金鍾烈、金宇中 金漢 부회장은 유임되어 새 부회장은 모두 5명으로 늘어났으며 成丁順 李大熙 李相燦 柳健浩 朴鍾觀 金鎔模 吳完建 朴聖仁 李明博 朴喆基씨등 10명의 신임 이사를 보강했다。6명의 지방 이사를 포함、14명의 이사는 유임되었다。

◇신집행부

▲회장=鄭周永▲부회장=金鍾烈 金宇中 金漢(이상·留) 金鍾圭 金相謙(이상·新)▲이사=朱硌煥 金晟集 金永基 徐潤福 李相世 李東洙 全敏煥 韓良順(이상·留) 成丁順 李大熙 李相燦 柳健浩 朴鍾觀 金鎔模 吳完建 朴聖仁 李明博 朴喆斌(이상·新) 朴萬泰 尹哲炳 李相周 李晶錫 李會林 韓在源(이상·留)▲감사=金璟洙 金鍾圭(이상·留) 1명미정

「불도저」會長맞은 體育會
"돈은 쓸곳에 써야 제값어치 있는것"
과감한 投資·체육계革新에 큰 期待

『말을 잘못 가는 황소는 뒤쪽으로만 간다』고 전제한 신임 鄭周永 대한체육회장은 황소와 정기를 비유로들어 체육인들의 단합을호소했다。일을하려면 어려움이 뒤따르고 찬반론이있게 마련。그러나 小我를 버리고 大我를위해일을해야 체육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수있다고 鄭회장은 지적했다。

돈을 쓰라고 체육회장이 된것으로안다고 전제한 鄭회장은 『부자는 돈을쓰지 않아야되는것이다』고 생활철학을 피력했다。그는 돈은 싸우는것이아니라 꼭써야할때 써야 값어치가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체육계에 과감한투자를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비쳤다。

체육계는 대기업 회장이며 불도저란는 별명이붙는 鄭회장이 과감한투자로 혁신을 몰고올것으로 기대를 하고있다。이런 부푼기대에 대해 鄭회장은 일침을 가했다。

『정열과 노력을 다해 일을 잘하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는것이 기업 신념입니다。돈은 피와 땀의 댓가입니다。노력을 하지않고 돈을 기대하는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체육인들도 열과 성을다해 노력의 댓가를 받을수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야한다고 촉구、일을 잘하면 정부나 민간기업의 자금지원이 자연히 뒤따르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을 경영하는데 부하직원의 의사를 묵살하는경우가 있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너털웃음을 터뜨린 鄭회장은 『의견은 기업주가 받아들일수있는 것이어야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채택되지않는게 아닙니까。묵살한다는 말은 지나치지않느냐』고 조크를 던지며 체육인들의 기탄없는 조언을 당부했다。

鄭회장은 잘하는 일은 더 잘하도록격려하고 잘못되는 일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정해 나가는것이신념이라고 밝히고、86년 아시안·게임、88년 서울 올림픽등 국가적인 중대사를 앞두고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받는체육인들이되자고 역설했다。【閔炳宅기자】

◇延世大―釜山産業大전 2회초 延世大 8번 李敵宰가 내야땅볼로 나가 2루 스틸에 성공하고있다。

백호기野球
延大 金文映 홈런2發
釜山産大꺾고 2회전에
8-4

제32회 백호기쟁탈 전국야구대회 3일째경기가 14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려 延世大가 金文映이 날린 3·9회초 솔로홈런와 敵失에 편승、釜山産業大를 8-4로 누르고 2회전에 진출、강적 漢陽大와 겨루게됐다。延世大는 6회초 안타와 釜山産業유격수의 실책으로 잡은 1死 2·3루의 찬스서 8번 李敵宰가 스퀴즈번트를 시도、釜山産業투수가 타구를잡아 1루로 던졌으나 1루수가빠뜨려 결승2점을 올렸다。

仁荷大는 金明星·金鎔雨의 홈런등으로 仁川專門大에 7-2로 대승했다。

◇제3일 1회전

연세대 031 002 101-8
부산산업대 010 300 000-4
▲홈런=金文映(3·9회·연세)宋種昌(2회·부산)

인하대 020 000 014-7
인천전문대 000 000 101-2
▲홈런=金明星(9회·2점) 金鎔雨(9회·이상인하)

◇제2일 1회전

고려대 001 010 100-3
성균관대 000 021 001-4
▲홈런=張彩根(5회·2점·성대)

88서울 올림픽大會땐
野球 정식採擇 전망
국제聯회장 밝혀

【몬트리올=柳承珉·鄭觀成기자】야구가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시범경기로 채택된데이어 88년 서울올림픽서는 정식경기종목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美프로야구 올스타게임관전을위해 이곳에온 로버트·스미드 국제아마 야구연맹(AINBA)회장은 13일 美프로야구 보위·쿤 커미셔너、日프로야구 시모다 커미셔너、한국프로야구 徐鐘喆 커미셔너등을 초청、프로야구관계자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야구가 프로、아마의 구분없이 세계적 스포츠로 발전하고있다。88년에는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INBA 회원국은 현재 46개국으로 84년까지는 50개국을 넘을것으로 예상된다。84년에는 美國과 유럽、남미、아시아 지역 대표등 4개팀이 올림픽 야구시범경기를 다저스구장에서 갖게된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야마모도 AINBA 부회장은 한국·日本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예선전은 83년에 열리며 장소、시기는 오는9월 서울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독신청 533 / 배달사고 2361

美野球 올스타戰
내셔널리그 11連勝기록
컨셉션 2點홈런

【몬트리올=柳承珉·鄭觀成기자】美프로야구축제인 82년 올스타게임이 14일낮(한국시간) 53년 역사상처음 美國땅을 벗어나 이곳 몬트리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려 2회말2死후 데이브·컨셉션(신시내티·레즈유격수)의 역전결승2점호머에 힘입어 라소다감독(다저스)이이끄는 내셔널·리그가 빌리·마틴(어슬레틱스)이 이끄는 아메리칸·리그에 4-1로 승리했다。내셔널·리그는 이로써 11연승을 기록、통산전적에서 34승18패1무승부、최근전적에서 20전19승의우세를 보이고있다。

결승홈런을 날린 데이브·컨셉션은 올스타게임 출장9번만에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양키즈에서 앤젤스로 자리를옮긴 레지·잭슨은 1회초 희생플라이로 아메리칸·리그에 선제점을 안겨주었으며、피트·로즈(필리즈)는 2-1의 역전리드를 잡은 내셔널·리그에 3회말 희생플라이로 3점째를、연봉 2백만달러짜리 포수 개리·카터(몬트리올)는 6회말 적시타로 4점째를 얻게했다。

스티브·로저스(몬트리올)、스티브·칼튼(필리즈) 마리오·소토(레즈)발렌수엘라(다저스)등 호화진용의 내셔널·리그 투수진은 이날 10개의 삼진을 빼앗았다。

올림픽·스타디움에는 트뤼도 캐나다수상、보위·쿤 美國커미셔너、徐鐘喆 한국총재、시모다 日本커미셔너、알페조·페랄타 멕시코 커미셔너등이 함께 자리했으며、홈런王 행크·아론、양키즈의 명포수 요기·베라、한국의 張勳、日本의 가나시마등 야구의 옛스타 10여명이 마운드에 나란히 서서 시구、6만관중들의 갈채를 받았다。

◇전적

아메리칸·리그 100 000 000-1
내셔널·리그 021 001 00×-4
▲홈런=데이브·컨셉션(2회·2점·내셔널·리그)

◇한자리에 모인 世界스포츠 스타들 세계스포츠의 스타들이 13일 스톡홀름의 스칸디나비움 아이스홀서열리는 한TV호화쇼에 출연하기위해 한자리에모였다。뒷줄왼쪽으로부터 스텐마르크、퍼손、보리、그레츠키、레너드、게룰라이티스、펠레、키건。【스톡홀름13日AP電話=聯合】

印、말聯꺾고 1勝
국제농구 下位리그

82 서울국제초청남자농구대회 6일째경기가 14일 장충체육관에서 속행、7·8위를 결정하는 하위리그서 신의 印度는 말레이지아를 73-69로제압、1승을 기록했고 말레이지아는 1승1패가 됐다。

신장이 월등한 印度는 골밑슛으로 쉽게득점을 올렸고、말레이지아는 맨투맨으로 印度의 공격을 막으려했으나 파울이 많아 42-42전반의 타이를 고수하지 못하고 후반에 무너졌다。

◇제6일전적
▲하위리그
인도 73 (31-42 / 42-27) 69 말레이지아
(1승) (1승1패)

새專務에 晋五鉉씨
力道聯 常任陣구성

대한 역도연맹은 晋五鉉씨를 전무로하는 상임진을 14일 구성했다。

◇상임이사명단
▲전무=晋五鉉▲총무=李宗燮▲경기=李宅榮▲심판=李鎬榮▲훈련=韓基豊▲재무=朴武雄▲기획=李亨雨▲섭외=權五植▲보디빌=金龍雲▲국제=張貴榮

優秀中高배구
仁荷附高 3승
忠南商과 4强에

【釜山】仁荷師大附高는 14일 구덕체육관에서 속행된 제17회 전국 우수중고배구대회 3일째 예선리그 최종일 남고A조경기에서 타점높은 공격과 철저한 블로킹으로 1년생으로 구성된 신생 釜山東亞工高를 3-0으로 꺾고 3승을 기록、예선 A조수위를 차지하여 준결승전에 진출했다。또 지난해 우승팀 忠南商高는 晋州東明과 접전끝에 3-1로 승리、2승1패로 결선에 나섰다。

◇제3일전적
▲남고A조
충남상 3-1 진주동명
인하사부고 3-0 부산동아공
▲동순위=①인하3승②충남상 2승1패③진주동명 1승2패④동아공 3패
▲여고리그
부산남성 3-1 경남여고
(2승) (1승1패)
경북여상 3-0 대구여고
(1승) (2패)
▲남중리그
경북사부중 2-1 충주미덕
(1승2패) (1승2패)
부산동아 2-1 동래
(2승) (2패)
▲여중B조
부산은하 2-1 부산수정
▲동순위=①마산제일2승②은하 1승1패③수정 2패【聯合】

이방현 KO勝
學生아마복싱

제32회 전국중고학생 아마복싱 선수권대회 이틀째경기가 1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속행、고등부밴텀급 1회전서 이방현(한영고)은 장정윤(안양공고)을 2라운드 1분35초만에 KO시키고 2회전에 올랐다。

같은급의 최성천(인천체)도 이건영(충암고)과 난타전을 전개하다 2라운드 1분35초만에 RSC승했다。이방현과 최성천은 15일 2회전서 격돌하게 된다。

한편 중등부 스폴급서 崔洋相(숭의중)은 金容權(성일중)을 1라운드 1분39초만에 RSC로 물리쳤다。

40萬弗 상환때까지
마라도나 移籍不許
아르헨蹴協밝혀

【부에노스아이레스13日AP=聯合】아르헨티나 축구협회는 前소속팀인 아르헨티노스·후니오르스팀이 협회에서 융자받은40만달러를 상환할때까지 마라도나의 스페인팀이적을 허용하지 않을방침이다。

이돈은 마라도나를 붙잡아두기위해 제공된 것이었으나 마라도나는 그후 보카·후니오르스팀으로 적을 옮겼다。

협회는 이돈을 상환받을때까지 이적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지 않을것이라고 발표했다。

스포츠短信

徐KBO總裁、보위·쿤만나

◆…美프로야구올스타 게임관전을 위해 몬트리올을 방문한 한국야구위원회 徐鐘喆총재는 13일 美프로야구 보위·쿤커미셔너와만나 韓·美간의교류에대해 협의했다。

徐총재는 15일 뉴욕에서 보위·쿤씨와 공식회담을 갖고 19일 뉴욕·양키즈의 스타인·브레너 구단주를、24일 다저스의 오말리 구단주를각각방문하며 다저스의 한국방문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몬트리올=柳承珉기자】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63>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응달 ㊸

『바보같이… 덮어놓고 좋아하기부터 하면 어떡허니? 쓰다보면 곧 그가 얼마나 하찮은 돈이라게 걸 알게 될거야。그나마 다내 돈이면 좋게?』

『자기 돈이 아니면 빚을 내왔단 말예요? 어쩌지…』

오목이는 실망을 감추지못해 당장 울상이 되고말았다。

『아냐。가게에서 축의금들을 거둬주더군。전에도 알게 모르게 살림이라고차려본 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다들 모른척 하잖으면 걱정이나 해주는 게 고작이더니 이번엔 사장님 이하 전직원이… 전직원이라야 몇 되지도 않지만、이웃 가게 사장님들이랑 아이들까지 너도 나도 축의금을 내놓으면서 잘 살라고 축의해주더군。그러고보니 네가 잘 보여도 여간 잘 보인게 아닌가봐』

『고마운 분들이에요。그 은혜를 어떻게 갚죠?』

『잘 살라고 축수해줬으니 잘 살아야할텐데…』

일환이의 말끝에 알게 모르게 한숨이 서렸다。오목이는 그게 걸려서 다부지게 항의했다。

『못살 게 뭐 있어요。잘살거예요。두고봐요』

『그럴 거야。넌 욕심이 없으니까』

일환이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보면서 중얼거렸다。

『그럼 자긴 욕심이 많단 소리예요?』

일환이는 대답하지않고 얼핏 허기진 얼굴을 했다。아침 잔뜩 먹은 남자의 허기진 표정이 오목이를 불안하게 했다。오목이는 그런불안을 지우려고 그의 뒤통수에다 대고 십년 묵은 여편네처럼 노숙하게 굴었다。

『일찍 들어오세요。참 하원 갔다오면 좀 늦겠네요?』

『하원 그만 둘거야。일찍 들어올께』

그가 섭가신 걸 뿌리친듯 짜증스럽게말하고가버렸다。동굴속에 혼자 남겨진 오목이는 치울것을 그대로 놔둔채 그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했다。암만해도 그의 얼굴은 잘 떠오르지 않았다。그 대신 갓 잡아올린 물고기처럼 뒤채던 그의 까닭모를 몸부림과 좀전에 발견한 허기진 표정만이 이상하도록 분명하게 떠올라 그녀는 움찔 어깨를 떨었다。

대강의 정리를 끝낸 오목이는 웅크리고 앉아 일환이가 주고간 돈을 세고 또 세었다。셀때마다 액수가 틀렸다。그러나 돈 세는 일은 몇번을 거듭해도 싫증이 안났다。겨우 셈을 맞춰놓고 사고싶은 걸 생각해보니 한이 없었다。꼭 필요한 것만 사지않으면 그 정도의 돈은 반나절에 거덜이 날것같았다。

돈이 아까와 꼭 필요한 것만 사기위해 그녀는 메모를 하기로 했다。종이와 볼펜을 놓고 심사숙고한 끝에「거울」을 써놓고는 그밖엔 한가지도 더 보태질 못했다。

비록 동굴같은 집구석일망정 거울을 걸고싶었다。동굴속에 살망정 두더지가 아니라 사람이란 걸、사람중에서도 예쁘고 젊은 여자라는 걸 때때로 확인하고 싶었다。

저녁에 시장에 간 그녀는 거울을 사고 반찬거리를 사고 싸구려판에서 빛깔 고운 홈웨어도 샀다。홈 웨어만은 메모한 바도 사고싶어한 바도 없는、순전한 충동구매였다。

홈웨어 입고 거울앞에 선 그녀는 그옷이 너무 화려하고 자기가 너무 젊고 예쁘다는 게 슬퍼서 가슴이 저리고 손끝 발끝까지 저렸다。거울이란 동굴같은데 걸게 아니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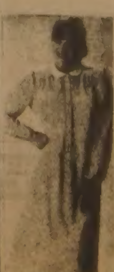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 Bay / Temperance St. / Yonge / King / Ⓟ

Maximode
o 숙녀를 위한 수입품 불란서, 이태리 핸드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o 가격이 저렴합니다.
OPEN : MON(월)~SAT(토)
9 a.m.~5 p.m (오전 9 시~오후 5 시)
147 Spadina Ave. #200(2층)
☎ : 596—1413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 각종 유화·서양화
•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en Craft
•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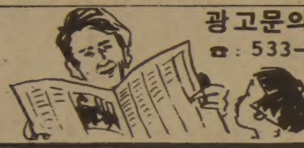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1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광고문의
☎ : 533-2361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친절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1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현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복수일 합니다.
•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진실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광고문의 ☎ : 533-2361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수리직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묵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illegible] 9[illegible] [illegible]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트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십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 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수 회계사무소
481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영업시간: 월~토 : 오전10시에서
저녁 8시까지
645 Bloor St. W.
전화 : 531-4165(R), 530-0522(B).
조 지 섭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가게를 맡아 운영해주실분 찾음.
보증금 요(스탁). 주매상: $8,000 이상
연락처: 491-9701, (오후 6시이후 292-8838 Mr. 신)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여자분)
좋은가격과 일하시기 좋은장소 보장함.
전화 : 466-1461

Part Time 남자헬퍼 구함.
(Richmondhill 지역) 전화: 884-5433

가게 맡아서 운영하실 분 구함(Gift Shop)
(Bathurst 와 Duffrin 중간지점) 776 St.Clair Ave. W
11시에서 4시 사이에 직접내방 바람.

Full Time Cashier 구함. (Day Time)
(Kipling & Bloor 근처)
전화 : 231-7944 (Mr. Hong)

세탁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무경험도 환영)
(Jane & Lawrence 지역) 오후 2시이후 연락바람.
전화 : 249-9331 (After 2:00p.m.)

경험많은 주말 가게 Helper 구함.
전화 : 278-8101

유경험자 여자 Cashier 구함.
1220 Davenport Rd.
전화 : 656-3020

☎ : 533-2361

하숙

Room & Board (New Markham, Finch, Scarboro지역) 하숙원함
독방과 식사제공 (1일 1식. 토·일요일은 2식)
연락처: 6시 이후 전화: 425-6068 Mr. Lee 월·수요일은 제외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로서 (결혼 실패한 남·녀)
한국에 있는 성실한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시는 분은 자기 소개서, 사진을 동봉하여 서울 주소로 연락바람.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409-9 전화: 878-9907 김만수
(2명이상 선정해서) 꼭 회답하여 줄것임.
(수수료 무료)

개인지도

첼로 개인지도(레스리×휜치)
전화 : 492-7472 (Mrs. 연)

도자기 공예를 전공하실분 개인지도함
전화 : 233-9534 정 동 훈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매매

사진 식자기 급매 (SAKEN SPICA-K)
교회 또는 인쇄소에 적당.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3,000 렌트: $300(M) 전화: 259-0323

보석상 (Bloor & Bathurst)
가게와 장비 포함. (월요일은 쉼)
10:00 a.m~6:00 p.m 전화 : 532-1525

Variety Store 매매(Short Hours) 건강상 이유로 팔고자함
주매상 : $4,000, 렌트: $500(m.) 리스: 5+5
아스킹: $39,000+스탁. 전화 : 636-1697

Variety & Grocery Store 급매
전화 : 694-7848

78년도 CHEV. PICK-UP 트럭 급매
가격 : $3,800
전화 : 665-8233 (아침 10시~저녁 6시)

Mall안에 있는 성업중인 Ice Cream Store (Hotdog·Donut·Sandwich) 토요일 : Half Day. 일요일 : Close
1184 Weston Rd.(Eglinton & Weston) 관심있으신 분 내방 바람.

Grocery Store for Sale
주매상 : $7,000~$8,000. 리스 : 3년반 + 5년 option
로타리오 머신 있음. 아스킹 : $80,000
115 Montezuma Trail. (Brimly & Finch)
관심있으신분 직접 내방 바람.

1. Coffee & Snack Shop
주 5일 Open, 바쁜 네거리에 위치한 Office Building내.
주매상: $5,000 Rent: $830 리스: 1990년
2. Albion Rd. & Hwy 27 공장지대
한국요리를 겸할수 있는 Chinese Restaurant
주류일절 판매. Rent: $1,000 리스: 1986년 + 5년 option
3. 시간짧은 Drive in Hamburger Place
주매상: $8,500 렌트: $1,700 리스: 1985년 + 5년 option

A. E. LePage Real Estate
Mrs. Woo 전화 : 741-9170

(1)New Franchise Ice Cream & Sandwich Bar.
도미니언과 씸슨 사이에 있는 커다란 Mall안에 있음.
Lease : 10년. Mortgage : $75,000. 12%. 5years.
(2)New Franchise, Hamburger(Yonge & Dundas)
주매상 : $9,000. Lease : 20년. 다운페이: $100,000

Patrick Ho. R.E.
Call Goe Sham
전화 : 593-8967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5년(Neagoti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Grocery Store for Sale
주매상 : $4,300~$4,800, 아스킹 : $26,000, Good Lease
Near Niagara Fall 전화 : 266-5895 (Mr. Kim)

Air Condition 급매. (Fedders)
용량: 36,000 B.T.U. Used One. 가격: $2,800
2 unit. 연락처: 277-8985, 656-6753(Ross)

성업중인 Variety Store 건물과 함께 매매.
주매상 : $3,600. 아스킹 : $85,900
전화 : 923-1206. Mrs. Lee (다운타운 지역)

Variety Corner Store for Sale
이층 살림집 포함. 주매상 : $4,000
전화 : (1)-529-0018 Mr. Kim (Hamilton)

Variety Store 급매.
또는 Management하실분 구함. 주매상 : $3,500
리스: 15년 전화 : 651-1577, 656-5358

Variety Store 급매. (스카브로 지역)
주매상 : $3,300~$3,500. 리스 : 9년. 렌트 : $350.
이층 살림집 렌트 가능. 전화 : 757-6458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3,300
전화 : 699-4804

성업중인 햄버거·레스토랑 급매
렌트 : 2년($385). +3년
아스킹 : $24,500 전화 : 251-1908 Mr. 리

(1)Variety Store 매매(Short Hours)
건강상 이유로 팔고자함. 주매상 : $4,000. 렌트 : $500/M.
리스: 5+5. 아스킹 : $38,000+스탁.
(2)Hunts Bakery in Mall(open)
주매상 : $9,000. 6days Short Hour. 아스킹 : $220,000
다운페이 : $150,000. Best Bakery in Canada
(3)Coffee Shop in Building.
주매상 : $6,000. 5days Short Hours. 아스킹 : $210,000
다운페이 : $100,000
이훈모 부동산 전화 : 225-1204

(1)Hamburger Shop
30여대 자동차 파킹 가능한 건물임. 건물은 McDonald 이나 Harvey와 같이 단독 건물임.
Asking : $150,000(건물포함)

(2)Variety Store in Mall
주매상 : $5,500+Lotterio+Post Office.
Lease : 5년+5년 Option. Rent : $1,800(관리비. Tax포함)
영업시간 : 월~토(9:00 a.m~9:00 p.m) 일요일은 쉼.
Asking : $100,000+스탁

(3)Variety Store with Gas Bar & Post Office
건물 2층에 2Bed Rm. 3Bed Rm Apt가 있으며, 단독주택도 있음. 그곳에서 월세가 $760 수입됨. 현재 여자노인 혼자 경영 하루매상 $300이나 전에는 주매상 $5,500넘던 가게였음. 작은돈을 투자하시고 살수 있으며. Rent에서 나오는 돈으로 Mortgage 지불하고 남음.
Asking : $13,500. Mortgage : 1st. 11¼% $72,000
2nd Mortgage도 가능함.
연락처 : Mr. 박(오샤와) 1-623-7000

Variety Store 매매 (Hamilton)
년매상: $200,000 가격: $28,000 + 스탁
F. Gallo Realtor 전화: 1-383-9356

가게렌트

Gift Store for Rent
렌트 : $800/M. 넓이 : 800 s.f
663 Bloor St. W. 전화 : 531-1563(그레이스)

여권

여권번호 : 426871
분실장소 : Hamiton Downtown지역
연 락 처: 526-0014 (방 용학)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아파트렌트

3 Bed Room. (M/$470).
7월말경 입주 가능 (Lawrence×Caledornia)
전화 : 651-4431

집렌트

2층 전체를 세놓고자 함(565 Pape Ave.)
2 Bed Rm. with 부엌 & 목욕탕.(노인부부환영)
월세: $350(M.) 전화 : 591-6863, 438-4519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눈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O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각종간판. Silk Screen)
133 Manville Rd.
전화 : 755-9087 이 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illegible]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 남·녀 컷, 파마전문
•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토랑토)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메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 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2ND CLASS MAIL NO. 6248